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62호 [루계 제25771호] 주체106(2017)년 9월 19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0일부터 12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으로 민족사적대경사, 특대사변을 안아온 핵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축하연회에 참석하신 소식을 도이췰란드의 데페아통신, 영국신문 《데일리 메일》, 체스코의 인터네트통신 노빈끼, 로씨야의 따쓰통신, 리아노보스찌통신, 신문들인 《이즈베스찌야》, 《꼼메르싼뜨》, 렌뗄레위TV방송, 인터네트신문 렌따.루, 인터네트통신들인 로스발뜨, 가제따.루, 에르베까, 일본의 교도통신, 《아사히신붕》, 《마이니찌신붕》, NHK방송, 미국의 UPI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가 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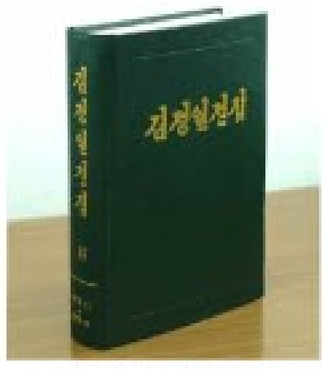
이 소식과 함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시고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으로 민족사적대경사, 특대사변을 안아온 핵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축하공연이 성대히 진행된데 대하여 인디아의 ANI통신, 인디아—아시아통신, 신문들인 《힌두스탄 타임스》, 《스테이츠맨》, 《인디안 엑스프레스》, 《타임스 오브 인디아》, NDTV방송, 만마신문 《더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만마》, 싱가포르신문 《스트레이츠 타임스》, 중국중앙TV방송, 브라질신문 《빠뜨리아 라띠나》, 베네수엘라의 뗄레쑤르TV방송, VTV방송, 뛰르끼예신문 《데일리 싸바흐》가 보도하였다.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 《현지지도소식들》과 백두산체스코조선친선협회,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나이제리아에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으로 민족사적대경사, 특대사변을 안아온 핵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축하공연이 성대히 진행된 소식,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핵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축하연회에 참석하신 소식,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올렸다.

언론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일전집》 제19권 출판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년대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수록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총서인 《김정일전집》 제19권을 출판하였다.

전집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61(1972)년 11월부터 주체62(1973)년 3월까지의 기간에 발표하신 담화, 연설, 결론 등 80편의 고전적로작들이 수록되여있다.

로작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도록 하시고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의 위대성이 담겨져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태양의 빛에는 그늘이 있을수 있어도 수령님을 모시는 우리들의 충성심에는 자그마한 그늘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셔야 한다》**, **《만수대창작사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잘 모시며 수령님의 영상을 최상의 수준에서 형상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보장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학예술부문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면서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유일적지도체제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문예출판사의 임무에 대하여》**, **《창작가들은 당의 의도를 창작실천에 정확히 구현하여야 한다》**, **《혁명가극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발전시킬데 대하여》**, **《예술인들의 기량을 높이기 위한 몇가지 과업》**을 비롯한 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였다.

로작들에는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유일적지도체제를 세우는 사업의 본질과 과업을 비롯하여 우리의 문학예술을 명실공히 주체의 문학예술로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밝혀져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문예사상과 당의 문예방침을 높이 받들고 영화, 가극, 음악예술을 비롯한 문학예술부문에서 다시한번 대고조를 일으켜나갈데 대한 사상이 천명되여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 **《수령님의 위대성선전을 잘하는것은 인민군신문의 첫째가는 임무이다》**, **《현대적인 군사과학과 다양한 전술을 소유한 일당백의 비행사들로 준비시켜야 한다》**, **《군인들속에서 혁명적동지애의 전통적미풍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에서 인민군군인들을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우는 일당백의 싸움군들로 준비시키며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대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여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위력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헌신과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세심한 지도가 **《생산을 자동화하여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자》**, **《문덕군은 알곡생산에서 전국의 앞장에 서야 한다》**, **《함경남도사업을 추켜세우기 위한 중심적문제에 대하여》**, **《수송의 긴장성을 풀기 위한 몇가지 대책적문제에 대하여》**를 비롯한 로작들에 담겨져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 **《국제축구경기대회에서 우승하고 돌아온 4.25축구선수단 성원들과 한 담화》**, **《나라의 체육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에서 체육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 나라의 체육기술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선수들이 주체적인 경기전법을 활용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전집에는 이밖에도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교수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학생들의 학습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릴데 대한 문제, 직업동맹사업을 수령님의 의도대로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법제정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법의 기능과 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백과전서적인 로작들이 들어있다.

《김정일전집》 제19권에 수록되여있는 로작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자력갱생대진군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리의 활로를 열어나가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고무추동하는 위력한 사상리론적재보로 된다.

[조선중앙통신]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원쑤들의 제재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자

전민총돌격전에로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

자강도당위원회에서

자강도당위원회에서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또다시 조작해낸 《제재결의》를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짓부셔버리며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에로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정치사업을 앞세워 조직과 대중을 움직이고 사상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우리 혁명을 진두에서 이끄시기에 미제와 추종세력들의 비렬한 제재책동도 두려울것이 없으며 천만대적이 덤벼들어도 반드시 이긴다는 드팀없는 신념을 더욱 깊이 심어주면서 대중을 당의 사상과 정책을 결사관철하는 총돌격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각급 당조직들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들을 당정책의 철저한 옹호자로,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에 한몸을 내대는 열혈투사들로 억세게 준비시켜 그들이 오늘의 반미대결전과 전민총돌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사상공세를 드세차게 들이대고있다.

선전선동부에서는 미제가 휘둘러대는 제재몽둥이를 자력자강의 무쇠마치로 짓뭉개버리며 대담한 공격전을 과감히 벌려 생산과 건설에서 더 큰 승리를 안아오기 위한 투쟁에로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는 선전선동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조직전개하고있다. 선전선동부에서는 선전선동력량과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일대 사상전을 벌려 도안의 이르는 곳마다에 비약의 열풍, 결사관철의 기상이 나래치게 하고있다.

도예술단배우들과 도예술선전대원들, 직외강연강사들이 경공업공장들과 주요건설장들, 현대적인 축산기지들을 비롯한 도안의 전투장들에 나가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며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키고있다.

도당위원회책임일군들은 들끓는 현실에 내려가 대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걸린 문제를 풀어주면서 대중의 심장에 불을 지피고있다. 도안의 여러 단위들에 나간 도당위원회 일군들은 대중속에 들어가 항일의 연길폭탄정신, 전화의 군자리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전시생산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증산투쟁, 창조투쟁, 생산돌격전을 더욱 맹렬히 벌려나가도록 고무추동해주고있다. 도림업관리국, 차가정세멘트공장, 회천정밀기계공장, 전천착암기공장을 비롯한 도안의 공장, 기업소, 단위들에 나간 도당위원회 일군들은 로동자들속에 들어가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밖에 없으며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것을 깊이 새겨주면서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을 적극 받아들여 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 군당위원회들에서는 인민생활과 직결되여있는 식료공장, 기초식품공장들에 원료와 자재를 원만히 보장해주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이와 함께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에서 과학농사열풍을 일으키고 다수확운동을 힘있게 벌려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한 투쟁에로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당이 안겨준 담력과 배짱을 안고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으로 우리 식의 최강의 주체무기, 주체탄들을 만들어낸 국방과학전사들의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배워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홍주청년4호발전소, 장자산소년단야영소, 도체육관, 강계스키장, 도예술극장을 비롯한 주요대상공사를 맡은 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은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에서 살며 투쟁하는 민족적긍지를 안고 일터마다에서 련속공격,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적들의 제재책동을 자력자강의 무쇠마치로 단호히 짓부셔버리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특파기자 김순홍

우리 식의 랭각분사공정이 은을 낸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중량레루생산공정에 확립된 우리 식의 물-압축공기혼합매질에 의한 랭각분사공정이 크게 은을 내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금속공업부문에서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철생산원가를 낮추고 주체화된 생산공정들의 운영을 정상화하여 철강재를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지난 몇해동안 중량레루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인 공정을 확립할 목표밑에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재료공학부 압연공학강좌 현상일, 리혜영, 최명철동무를 비롯한 연구집단은 련합기업소기술자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 중량레루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나갔다.

과학기술적문제해결의 열쇠를 바로 찾아쥐고 현장로동자, 기술자들과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그들은 애로와 난관도 적지 않았지만 조금도 주저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끈질긴 탐구를 거듭해나갔다.

결사관철의 사상적각오를 안고 떨쳐일어난 그들은 새로운 공정확립을 위한 설계정수들을 하나하나 확정해나갔다.

기사장 김영철동무를 비롯한 련합기업소책임일군들은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자재를 확보하고 로력조직을 짜고들어 장치제작과 설치를 짧은 기간에 완성하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조강직장 기사 박명철, 압축기운전공 김일명, 장명길동무들을 비롯한 기술자, 로동자들은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여 수십차례의 중간도입시험을 성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중량레루에 대한 랭각분사를 우리 식으로 완성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련합기업소와 대학의 연구집단이 힘과 지혜를 합쳐 우리 식의 랭각분사공정을 확립한 결과 지난 8월까지 해당 중량레루생산계획이 초과완수되고 레루의 질도 제고되여 혜산—삼지연철길공사에 필요한 레루생산성과를 확대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중량레루생산을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우는데 크게 기여한 이 기술혁신안은 올해에 국가과학기술성과도입증을 받았다.

련합기업소에 확립된 우리 식의 랭각분사공정은 중량레루생산공정에서 큰 은을 내고있다.

우선 생산되는 레루의 교정전 만곡도가 훨씬 줄어들고 레루머리부의 절면굳기도 높아져 레루의 질을 개선하게 되였다. 그리고 랭각대에서의 랭각시간을 단축하여 생산성을 높이는데 적극 기여하고있다.

지금 련합기업소기술집단은 해당 단위 연구집단과 힘을 합쳐 중량레루생산활성화의 숨결을 더욱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안아올 결의밑에 과학기술결사전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전투목표 돌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난해에 이룩한 승리를 공고히 하면서 5개년전략수행의 확고한 전망을 열고 나라의 경제전반을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자면 올해 전투목표를 기어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제재책동을 자력자강의 무쇠마치로 짓뭉개버리며 증산돌격전을 드세게 벌려온 어대진청년제염소와 함흥목제품공장에서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빛나게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어대진청년제염소에서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내일 불같은 마음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어대진청년제염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면서 지난 8월초까지 년간 소금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어랑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제염소일군들은 대중의 정신력을 폭발시켜 수백정보에 달하는 소금밭진흙다짐을 한달동안에 해제끼고 수만㎡의 진흙깔기를 진행하였으며 수백m의 송수판보수를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끝내였다. 또한 자체의 힘과 기술로 검은색타일생산기지를 꾸려놓고 여러 정보의 결정지에 타일붙이기를 진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하여 올해 소금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는 확고한 물질기술적담보를 마련하였다.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소금생산전투에 진입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집덕의 고경찬영웅소대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본받아 소금생산에서 련이어 승리의 개가를 높이 올리였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뜻밖에 해일이 일고 소나기를 동반한 세찬 바람이 불어치는 속에서도 당앞에 다진 맹세를 한치의 드팀도 없이 결사관철해나갈 불타는 의지를 안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소금생산전투를 벌리였다.

그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면서 매일 맡겨진 전투계획을 1.3배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지난 7월에는 하루 최고 100여t에 달하는 소금을 생산하는 놀라운 실적을 기록하였다.

소금생산제3작업반이 벌써 년간 소금생산계획을 완수한데 이어 많은 소금생산작업반들이 년간 소금생산계획을 완수하였다.

운수작업반, 공무작업반원들은 소금생산의 기계화를 실현하고 전동기를 비롯한 설비가동에 필요한 부속품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여 소금생산기일을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타일작업반원들은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고 소성로와 성형기를 비롯한 설비관리를 짜고들어 많은 타일을 생산보장하였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밑에 계속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함흥목제품공장에서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하였다는 격동적인 소식에 접한 함흥목제품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증산투쟁, 창조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지난 8월 15일까지 107.1%로 완수한 기세로 더 높은 목표밑에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공장초급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장을 현지지도하신 10돐을 맞는 8월까지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할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그 수행을 위한 투쟁에로 일군들과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특히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제재책동을 자력갱생의 드세찬 무쇠마치로 짓부셔버리기 위한 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였다.

어수영, 김성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로력조직과 자재보장,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틀어쥐고 전투작전과 지휘를 패기있게 해나갔다.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일군들은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실속있게 하여 대중적기술혁신운동으로 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그 어느때보다도 힘있게 벌리였다.

참모부서의 일군들은 기술합평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우수하게 평가된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적극 도입하여 제품의 질을 보장하고 자재를 극력 절약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나갔다.

제재종합작업반에서는 집체적지혜를 합쳐가며 합리적인 제재방법을 받아들여 생산성을 1.3배로 높이였다.

자재일군들과 공무작업반원들은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과학자들의 방조속에 능력이 큰 접착제생산기지를 꾸려놓아 생산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운수작업반의 운전사들은 자체로 백여m의 암반구간을 들어내고 토량을 처리하여 자동차길을 완성하고 지난 시기에 비하여 통나무운반실적을 1.3배로 끌어올리고있다.

가공종합작업반과 부산물작업반에서는 목재가공과정에 나오는 자투리를 모조리 회수하여 종공판생산의 원가를 훨씬 낮추고있다.

집성재종합작업반에서는 광면대패기와 자동축삭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지난 시기에 비해 1.2배에 달하는 집성재를 생산하고있다.

조립종합작업반에서도 원통연마기, 압축공기식연마기, 진동식연마기 등을 새롭게 개조하여 제품의 질을 높이면서 매일 계획을 150%이상 해제끼고있다.

특파기자 김경철

새로 일떠선 현대적인 화장품생산공정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신의주화장품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짧은 기간에 액체세수비누와 샴푸를 비롯한 수십가지의 새 제품을 생산할수 있는 현대적인 세척용 및 액체화장품생산공정을 꾸려놓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난해 12월 신의주화장품공장에 세척용 및 액체화장품생산공정을 꾸리도록 하여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는 현대적인 화장품생산공정을 일떠세우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면서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을 위훈창조에로 적극 불러일으켰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지배인 김혜영, 초급당위원장 명성봉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은 현대적인 화장품생산공정을 꾸리기 위한 일별, 주별, 월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자재와 설비보장을 앞세우면서 공사를 다그쳐 끝내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부지배인 김재남동무는 통나무와 세멘트, 차열복합관을 비롯한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였다.

공정장치연구실장 김철호, 정보실장 현세영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은 도전자업무연구소 연구사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면서 원료, 자재, 제품운반에 절실히 필요한 무인운반차를 새로 제작하였다. 이들은 탐구의 낮과 밤을 이어가며 생산공정의 자동조종체계,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무균화, 무진화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갔다.

공무직장장 김호길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기능공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투쟁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면서 여러종의 지구장비들을 제작도입하였다. 그리하여 마개공급기를 비롯한 25종에 112대의 각종 설비들을 제작설치하였다.

공장에서는 지난 7월까지 현대적인 세척용 및 액체화장품생산공정을 훌륭히 꾸려놓고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책동을 자력자강의 무쇠마치로 짓부실 의지를 안고 지금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갖가지 질좋은 세척용 및 액체화장품을 꽝꽝 생산하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대흥청년영웅광산에서— 본사기자 리동규 찍음
국방과학전사들의 투쟁정신, 투쟁본때를 따라배워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선군혁명나팔수들의 총진군포성에 화답하여 자력갱생의 영웅신화를 끊임없이 창조해나갈 신념의 분출

모란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왕재산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을 본 강원도인민들의 반향

위대한 어머니당에 대한 열화같은 칭송의 노래, 사회주의진군가로 온 강원땅을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고있는 모란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왕재산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에 대한 판람열기는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있다.

천만심장에 불을 다는 선군혁명나팔수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 자력갱생의 동음높은 강원도의 군민발전소건설장들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을 비롯한 일터와 마을마다에서 각계층 인민들이 공연장소인 송도원청년야외극장을 끊임없이 찾고있다.

국보적인 예술단체들을 보내준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만리마대진군길에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발구름소리를 더욱 우렁차게 울려갈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의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백배해주며 련일 대성황을 이루고있는 공연은 도안의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우리 원수님의 마음속 첫자리에는 강원도인민이 있다

강원도인민위원회 사무장 박만수는 황홀한 공연무대를 강원땅에 펼쳐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도안의 전체 인민들의 가슴속에 차넘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공연을 보면서 강원땅을 찾고찾으시며 자력갱생의 불길을 지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이어 우리들을 새로운 시대정신의 창조자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에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었다.

강원땅에 솟아오른 기념비적창조물들마다에는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로고가 어려있고 강원도인민들을 세상에 부러운것없이 사회주의만복을 누리며 잘살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깃들어있다.

공연은 절세의 위인들과 맺은 정을 피줄처럼 잇고 사는 강원도인민들의 그리움을 그대로 펼쳐보인 감동깊은 화폭이였다.

특히 녀성독창 《아버지라 부릅니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사회주의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사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더해주었다.

원산시인민위원회 부원 황은옥은 공연을 본 소감을 이렇게 피치였다.

시안의 공장, 기업소 로동계급을 비롯한 시민들모두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희한한 공연에 대한 소식으로 시간가는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우고있다.

언제나 당의 숨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투쟁해온 강원도인민들이 위대한 시대정신의 창조자들답게 만리마대진군의 앞장에서 더 힘차게, 더 기세충천하게 나아가라고 고무해주는 공연은 우리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리였다.

우리 원수님의 마음속 첫자리에는 언제나 강원도인민들이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강원도인민들에게 베푸시는 크나큰 은덕을 한시도 잊지 않고 도를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 자력자강의 기수도로 만들기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쳐가겠다.

텔레비죤화면에서만 보아오던 모란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왕재산예술단의 공연을 송도원청년야외극장에서 본 흥분을 금치 못하며 강원도청년들격대 지휘관 조용성은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실화시 《영광의 땅, 강원도!》를 들으며 뜨거운 눈물로 두볼을 적시였다.

우리 강원도인민들처럼 복받은 인민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눈물겨운 헌신의 로고로 전기력, 소금력, 샘물력을 보고있는 우리들이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속에 사회주의문명의 향유자가 되였다.

무대배경에 펼쳐지는 천지개벽된 강원땅의 흥하는 모습을 보니 위대한 수령님들의 체취가 슴배인 이 땅에 새상제일 무릉도원을 펼쳐주시는 우리 원수님의 그 사랑에 복받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강원도인민들에 대한 당의 기대를 심장에 새기고 발전소건설에서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해나가겠다.

원산수산사업소 로동자 윤신복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첨예한 정세가 조성된 시기에 필승의 신념과 승리의 락관을 더해주는 혁명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강원땅에 높이 울려준 당의 뜻을 가슴에 새겨안았다, 하늘땅이 천만번 무너진대도 변함없이 우리 당만 믿고 따르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바다 만풍가》를 더 높이 울려가겠다고 말하였다.

자력갱생의 영웅신화창조에로 힘있게 추동한 총진군포성

모란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왕재산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은 자강력제일주의 기치높이 오늘의 전민총돌격전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강원도정신창조자들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천내리세멘트공장 지배인 엄영학은 정말 힘이 나는 공연, 최후승리의 신심과 광망을 안겨주는 참신하고 기백이 넘쳐나는 공연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종목이 다 그러하지만 남성합창 《사회주의의 오직 한길로》, 녀성중창 《인생의 영광》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을 명줄로 삼고 그 뜻을 받드는 길에 순결한 량심과 의리를 바쳐온 나날들을 감회깊이 되새겨주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기쁨과 시련의 영광만리를 헤쳐온것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우리 당이 펼친 사회주의강국건설구상을 결사의 정신으로 실천해나갈 굳은 결의를 다시금 가다듬게 된다.

당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단위에서 일하는 영예를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자력갱생의 무쇠마치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며 사회주의강국의 휘황한 래일을 앞당겨나가겠다.

공연이 시작된 때로부터 우리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에서는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일어났다고 하면서 공장 지배인 한원일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공연을 본 일군들과 로동자들모두가 신심과 락관에 넘쳐 일하니 온 공장이 흥성이고 기적창조로 불도가니처럼 끓어번져 매일 계획수행률은 150%계선을 돌파했다.

공연은 시대의 힘찬 진군가가 되여 우리들을 자력갱생의 길로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

오늘의 앙양된 기세로 계속 내달려 만리마선구자대회장에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떳떳이 들어서겠다는것이 우리 공장종업원모두의 한결같은 결심이다.

우리는 군사복무의 나날에 발휘한 불타는 애국심과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진군의 북소리를 힘차게 울려나가겠다.

문천강철공장 로동자 최청일은 지금 공장에서는 로보수전투를 시작하였는데 기존공식대로 하면 한주일은 걸려야 하는 어려운 전투과제이다, 이러한 때에 선군혁명나팔수들의 격동적이며 랑만에 넘친 공연을 보고나니 온몸에 힘과 용기가 샘솟는다, 우리는 이 기세로 로보수를 이틀동안에 끝낸것을 결의해나섰다, 당의 전략적핵무력건설구상을 실천적성과로 받은 국방과학전사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로보수를 단숨에 해제낌으로써 도안의 발전소건설장들에 필요한 강재를 원만히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공연시작부터 마감까지 모든것이 완벽하여 시종 커다란 흥분속에 관람하였다고 하면서 문천탄광 굴진공 류문산은 자기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정말 훌륭한 공연이다.

매 종목들마다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인민사랑이 그대로 넘쳐흐르고 그이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천만군민의 맹세가 끓어번지고있어 우리모두의 심장을 세차게 틀어잡았다.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나가자 조선아 병진 앞으로》, 경음악 《단숨에》를 비롯한 종목들에서 백배해지는 조국의 힘을 느끼였고 소리치며 잘살 날이 눈앞에 다가오고있다는 확신을 가지였다.

우리 관부들은 자력갱생의 선구자들,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살의 순간순간을 값높은 위훈으로 빛내이며 석탄증산성과로 당의 위업을 견결히 받들어나가겠다.

원산시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박철남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최고의 믿음과 사랑을 받아안으며 사는 우리 강원도인민들이 과연 어떻게 살며 투쟁해나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준 공연이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새로운 영웅청년신화창조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총진군포성에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얻은 시안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 농장의 청년전위들이 일터마다에서 기적과 위훈창조의 불길을 지펴올리고있다.

우리 원산시안의 청년전위들은 백두산청년대강국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믿음과 기대를 한시도 잊지 않고 당의 강국건설구상을 결사관철하여 최후승리의 결승선에 남먼저 들어설것이다.

강원땅을 진감하는 장쾌한 음악포성과 더불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총진군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려는 신념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울려나오고있다.

공연을 본 강원도안의 전체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위대한 시대정신의 창조자답게 강원땅에 더 큰 비약과 기적의 불길을 거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사회주의락원을 보란듯이 꾸려갈 혁명적열의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조선중앙통신】

김영남동지가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을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는 1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청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9돐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을 만나 동포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박봉주동지 함흥시의 중요기업소들 현지료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가 2.8비날론련합기업소, 룡성기계련합기업소, 흥남비료련합기업소를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박봉주동지는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제재봉쇄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드높은 열의를 안고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기업소들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계급의 투쟁을 고무해주었다.

기업소들을 돌아보면서 그는 생산실태와 능력화장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협의회들을 진행하였다.

협의회들에서는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높이 주체비료와 비날론, 대상설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며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대상건설을 다그쳐 끝낼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또한 련관단위들에서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제때에 책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이 토의되였다.

한편 박봉주동지는 국가과학원 함흥분원에서 탄소하나화학공업을 창설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박봉주동지 2.8비날론련합기업소 현지료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영웅적위훈을 새겨간다

삼 지 연 군 꾸 리 기 전 투 장 에 서

승리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릴 그날을 앞당기리

혜산—삼지연철길건설려단 일군들과 나눈 이야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일욕심, 진취적인 사업태도를 가지고 최대의 마력을 내야 하며 당과 인민앞에 자기의 충실성과 실천력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혜산—삼지연철길건설을 최단기간에 다그쳐 끝내는것은 삼지연군꾸리기를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얼마전 우리는 혜산—삼지연철길건설려단 지휘관들을 만나 철길공사의 중요성과 현 실태, 완공을 앞당기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전투장의 숨결을 체험하니 가슴이 벅차고 완공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확신이 굳어진다. 철길공사의 중요성과 함께 현재까지의 공사정형에 대하여 알고싶다.

정치부장 최성국: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혜산—삼지연철길공사를 위해 강력한 건설력량을 조직해주신데 이어 공사와 관련한 귀중한 카르치심들을 주시였으며 성과가 확대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고계신다.

삼지연군꾸리기는 방대한 세멘트와 골재, 건설용자재수송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철길건설을 앞세워야 긴장한 연유를 절약하면서 자재를 원만히 수송하여 공사속도를 더욱 높일수 있다. 혜산으로부터 삼지연군을 거쳐 무산군을 련결하는 통환선철길을 건설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서도 큰걸음을 내짚게 된다.

지금 사단의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전체 지휘관, 돌격대원들은 당의 결정지시를 하늘이 무너져도 기어이 결사관철할 불같은 각오밑에 백수십리의 로반공사를 끝내고 레루부설과 철도전기화공사, 역사와 철도종업원살림집건설 등 방대한 건설을 립체적으로 추진하고있다.

참모장 리성삼: 혜산—삼지연철길은 철도운행의 안전성을 높이고 큰물피해를 받지 않게 험한 산발과 골짜기들을 뚜르르며 형성되고있다. 종전의 좁은 철길구간을 벗어나 백두대지로 뻗어가는 새 철길은 지금 포태지구를 지나 삼지연못가로 향하고있다. 이제 남은 구간은 얼마되지 않으며 역사와 역흙, 철도전기화공사에서도 성과가 확대되고있다.

레루부설속도는 종전보다 2배이상 높아졌고 철도역들과 역흙건설에서도 높은 공사속도가 창조되고있다.

기자: 혜산—삼지연철길건설을 짧은 기간에 다그쳐 끝내는데서 나서는 문제는 무엇인가.

시공분과장 김정철: 건설장에서는 지금 공사에 참가한 돌격대원들이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청춘의 기상과 용맹을 떨치며 맡은 공사를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고있다.

공사실적을 더욱 높이자면 련관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철강재와 세멘트, 마감건재와 레루, 침목을 비롯한 건설자재와 설비, 부속품을 원만히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추위가 닥쳐오기 전에 철길공사를 다그쳐 끝내여 삼지연군꾸리기를 더욱 활력있게 추동할수 있다.

내각사무국 부국장 김기철: 옳은 말이다. 지금 련관부문 공장, 기업소책임일군들부터가 삼지연군꾸리기를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된 도리를 다하는 성스러운 일로 여기고 많은 설비와 자재를 앞세워 보장해주고있다.

평양시와 함경남도, 황해남도를 비롯한 각 도의 책임일군들이 이 공사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명심하고 대중을 적극 발동하여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고있다. 특히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능력있는 일군들을 현지에 파견하고 제기된 문제들을 수시로 대책하여 철길공사가 힘있게 추진되도록 하고있다. 이런 일군들이 있는 단위의 공사실적, 자재와 설비보장실적은 높에 띄게 높다.

련관부문의 공장, 기업소와 각 도, 시, 군의 책임일군들은 전당, 전국, 전민을 삼지연군꾸리기에로 부른 당의 호소를 심장에 새기고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혜산—삼지연철길건설에 필요한 로력과 자재, 설비들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다시한번 불을 지펴야 한다.

정치부 부부장 조승호: 우리 일군들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백두대지에서 화선의 기관차가 되여 내달릴 때 공사속도는 더욱 빨라지게 된다. 이번에도 체험하였지만 험한 산발들과 골짜기들을 통과해야 하는 불리한 작업조건으로 침목과 레루수송이 긴장하여 공사속도가 떨어질 때도 있었다. 하지만 사단지휘부의 대담한 작전과 일군들의 혁명적실천이 따라섰기에 대형화물자동차에 의한 침목운반작업방법이 도입되고 작업철길로 레루수송도 앞세워 철길건설속도를 현저히 높이게 되였다.

려단의 모든 일군들이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에 참호를 정하고 돌격대원들과 어깨겯고 콩크리트침목도 나르며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할 때 애로와 난관이 아무리 크다 하여도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는것을 다시금 절감하고있다.

정치부장 최성국: 우리는 철길건설의 성패가 일군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높이 공사조직과 지휘를 더욱 면밀하게 짜고들겠다.

모든 일군들이 치렬한 공격전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려 백두대지에 울리는 승리의 기적소리로 만리마선구자대회를 뜻깊게 맞이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살림집건설 본격적으로 추진

량강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혜산—삼지연철길건설이 마감단계에서 추진되는것과 함께 철길주변 철거세대살림집건설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량강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또다시 조작해낸 《제재결의》를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짓부셔버릴 일념을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살림집건설에서 련일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들의 운명을 지켜주며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언제나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혜산—삼지연철길건설이 올해안으로 완공되게 되는것과 관련하여 철길주변 철거세대살림집건설을 다그칠데 대한 혁명적인 조치를 몸소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어린 조치가 하루빨리 철길주변 철거세대살림집 주민들에게 가닿게 하기 위하여 량강도에서는 10여동에 1천여세대의 살림집건설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모든 력량과 수단을 집중하기 위한 전투조직을 짜고들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급, 시급기관들과 공장, 기업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을 비롯한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살림집건설에로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현장지휘부에서는 방대한 공사를 단 몇달동안에 끝낼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전투작전과 지휘를 패기있게 해나가고있다.

김철성동무를 비롯한 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화물자동차운전사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모래와 자갈을 건설장들에 보장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도당위원회대대에서는 로력조직을 잘하고 기계수단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공사속도를 부단히 높이고있다. 인민을 위한 일에 바로 당일군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자각을 안고 대대의 돌격대원들은 2층 층막콩크리트치기를 끝낸 기세로 3층 층막콩크리트치기를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치고있다.

도당학교의 1, 2, 3, 4중대의 돌격대원들은 불타는 애국충정과 희생적인 헌신으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정신을 결사보위한 혁개발자들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어렵고 힘든 모퉁이를 맡아 돌격로를 앞장에서 열어나가고있다.

살림집건설에 동원된 청년돌격대원들은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며 일터마다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도인민위원회대대에서도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힘찬 공격전을 들이대여 콩크리트치기와 벽체축조, 철근조립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도김철소대대에서는 중대, 소대별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시공조직을 짜고들어 공사속도와 질을 동시에 보장하고있다.

삼수군중대의 돌격대원들이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돌격전의 전렬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이악하게 뚫고나가면서 기초굴착과 1층 층막콩크리트치기를 짧은 기간에 결속한 이들은 매일 계획을 110%이상 수행하면서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고있다.

대홍단군의 책임일군들은 살림집건설정형을 수시로 알아보고 공사에 필요한 화물자동차와 설비보장대책을 세워주고있다.

혜산강철봉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싸우는 고지에 총포탄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더 많은 강재를 건설장에 보내주기 위하여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수많은 청년학생들과 주민들이 야간전투에 떨쳐나 살림집건설에 애국의 마음을 바쳐가고있다. 그들은 매일밤 돌격대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물심량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있다.

도안의 녀맹조직들에서는 경제선동을 활발히 벌려 살림집건설에 떨쳐나선 돌격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있다.

김형직군, 김형권군, 운흥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돌격대원들과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살림집건설에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바쳐가고있다.

공사속도를 높일수 있은 비결

체신성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얼마전 우리는 216사단 지휘부의 한 일군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였다.

《백두대지에 바치는 체신성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충정의 마음은 남다르답니다. 하기에 그들은 지금 사단적인 경쟁에서 련이어 우승의 영예를 떨치고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들끓는 현장을 가슴에 다시금 안아보는 우리의 눈에 마침 낯익은 일군이 띄였다. 체신련대 련대장 리원근동무였다.

체신성 일군들과 종업원들에 대하여 화제에 올리는 우리에게 그는 성적인 긴급협의회때 있었던 일을 감명깊게 들려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모시며 수령영생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순결한 량심과 도덕의리심을 가지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삼지연군을 찾은 성의당, 행정일군들은 가파로운 산정에 있는 중계소건설장을 비롯한 련대가 맡은 여러 대상공사장을 돌아보며 설비와 자재보장, 로력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전당, 전국, 전민을 삼지연군꾸리기에로 부른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부족한것이 한두가지가 아닌 조건에서 체신현대화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많은 연유와 통전기재를 보장하였지만 주인된 눈으로 살펴보니 마음에 걸리는것이 있었다.

날씨가 추운 백두대지에 달려나와 충정의 구슬땀을 바쳐가는 돌격대원들의 생활에 미흡한 문제들이 있었던것이다.

며칠후 성에서는 해당 일군들이 참가한 가운데 긴급협의회가 열리였다. 당책임일군인 김군남동무는 이렇게 호소하였다.

《삼지연군꾸리기에 순결한 충정을 바치는것은 우리모두의 의무입니다. 돌격대원들에게 겨울내의를 비롯한 생활필수품들을 충분히 해결하여 보내줍시다.》

이날의 협의회에서는 추위가 닥쳐오기 전에 돌격대원들의 생활조건을 보다 원만히 보장할 방도와 함께 설비와 자재보장에서 더 제기될수 있는 문제들도 토론되였다.

성의 정무원들과 아래단위 종업원들이 너도나도 떨쳐나섰다.

일군들은 해당 공장, 기업소에 내려가 대중의 열의를 불러일으켜 및섬유통신케블과 교환기를 비롯한 체신설비를 마련하고 어려운 조건이지만 삼지연군꾸리기를 우선시하는 립장에서 예비를 폭 떼내여 더 요구되는 연유와 지붕재까지 확보하였다. 정무원들과 종업원들은 어제발치개와 장갑 등 공사에 필요한 로동보호물자들도 마련하고 가정들에서 생활필수품도 성의껏 안고나왔다.

성의 당, 행정일군들은 종업원들이 돌격대원들과 한전호에 선 심정을 안고 공사에 실지 도움이 될수 있는 물심량면의 지원사업에 떨쳐나서도록 사업을 더욱 짜고들었다.

이 나날 삼지연군꾸리기에 이바지할 충정의 마음들은 가지가지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수없이 꽃피웠다.

가정들에서 저축했던 많은 자금을 공사장에 보내줄것을 부탁한 종업원들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갖가지 과일과 남새를 가득 싣고 건설장을 찾은 복조일, 백성덕, 방인호, 박명일동무들이며 자재상사 운전사인 림철웅동무를 비롯한 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다 전하지 못한다.

날로 뜨거워지는 성적인 지원사업은 련대장 리원근동무를 비롯한 련대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렸고 그것은 그대로 높은 공사성과로 이어졌다.

련대의 지휘관들은 체신설비현대화, 맡은 대상공사조직과 지휘를 과학적으로 예견성있게 짜고들었다. 특히 건설대상이 분산되여있는 조건에 맞게 화선의 기관차가 되여 한개 단위씩 맡아 돌격대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공사에 필요한 자재보장을 선행시키였다. 성당조직과의 련계밑에 공사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이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었다.

돌격대원들은 한사람이 두몫, 세몫의 일감을 맡아 뛰고 또 뛰였다. 그들은 가파로운 산정점으로 세멘트와 혼석을 져나르며 애국충정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뿌려갔다. 련대가 올해공사과제를 기한전에 일당겨 끝낼수 있는 확고한 돌파구는 이렇게 열리였다.

체신성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련대가 맡은 대상공사는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을 혁명의 성지답게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한 보람찬 전투에 한마음한뜻이 되여 떨쳐나선 성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힘찬 투쟁은 백두성지를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 사는 온 나라 인민이 지닌 충정의 마음의 일단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대중의 정신력을 고조시키는 첨입식정치사업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상의 포문을 열고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쏘아대야 합니다.》

항일혁명선렬들의 붉은 피가 스민 백두대지에서 혁명의 북소리가 날을 따라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216사단 정치부의 조직사업에 따라 최근에만도 들끓는 전투장마다에서는 활기있는 직관선전, 기동예술선동대활동이 진행되였다.

어려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첨입식사상공세가 벌어지는 가운데 각 도와 시, 군은 물론 공장, 기업소의 수많은 기동예술선동대들까지 현지에 달려와 사상전의 포문을 열고있다.

결과 삼지연군꾸리기전투장과 혜산—삼지연철길건설장, 포태와 무봉지구건설장 등 모든 일터마다에서는 돌격대원들의 정신력을 천백배로 고조시키며 혁명의 북소리, 진군의 나팔소리가 하늘땅을 진감하고있다.

사단정치부에서는 각 려단들에서 전투의 실상이면 항일혁명선렬들처럼 흥겨운 오락회를 펼쳐 돌격대원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락관을 백배해주는것을 화선식정치사업의 중요한 고리로 틀어쥐고나가도록 하고있다.

공사장이 넓은 지역에 전개된데 맞게 정치부의 일군들이 한개 단위씩 맡고 현지에 나가 사상의 포문을 열고 돌격대원들의 전투적사기를 높여주며 실천적모범을 보이고있다.

각 려단들에서는 전투장마다에 속보판을 전개하고 삼지연군을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꾸리기 위한 다양한 주제와 내용의 직관선전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만리마를 타고 우리 인민이 이룩하고있는 두 쟁취과와 미제와의 대결전에서의 련이은 승전소식, 돌격대원들의 영웅적인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제때에 널리 소개하면서 그 실효성을 최대로 높이고있다.

백두대지로 달려온 각지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들에서 호소성이 강한 공연들로 대중의 심장마다에 결사관철의 정신력을 백배해주고있다.

그들은 페스가 갈수 없으면 대형화물자동차를 타고, 그마저도 들어갈수 없으면 음향설비와 기재들을 등에 지고 불붙는 전투장들을 찾고 또 찾으며 기백있는 화선공연들을 진행하고있다.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들도 안겨주며 돌격대원들의 일손을 도와 맞들이전을 벌리면서 새날을 맞이하고있다.

사단지휘부의 책임일군들과 정치부일군들은 애로와 난관이 막아설수록 사상의 포문을 열고 삼지연군꾸리기공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끝낼 확고한 관점밑에 현장조건에 맞게 첨입식사상공세의 도수를 더욱 높여 돌격대원들의 가슴마다에 혁명열, 투쟁열을 북돋아주고있다.

우리는 불가능을 모른다

혜산—삼지연철길건설려단 황해북도련대 돌격대원들

황해북도련대가 맡은 철길건설전투장에서 백열전이 벌어지고있다.

기관차대청사, 기관차정비차고, 승무원휴게실 등 방대한 공사를 1년도 못되는 사이에 완공하기 위하여 련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만리마를 탄 기세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체질화하고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차굴과 로반, 옹벽, 소구조물을 비롯한 철길공사를 남먼저 끝낸 황해북도련대 돌격대원들이 위연청년역건설장에 전개한것은 올해 1월말의 몹시 추운 날이였다.

얼마나 날씨가 찬지 언땅에 박는 정대마저 휘여들다 못해 꺾어지고 곡괭이자루도 부러져나갔다.

기초를 파낸 자리에서는 지하수가 팔팔 쏟아져나왔고 물면에는 얼음장이 덮이였다.

이때 련대정치부장 리천일동무가 대오앞에 나섰다.

《동무들! 삼지연군꾸리기에서 돌파구는 바로 철길입니다. 우리가 난관앞에 순간이나마 주저한다면 철길건설은 그만큼 늦추어집니다. 나는 전련대가 결사전에 나설것을 호소합니다.》

심장을 울리는 그의 호소에 화답하여 온 련대가 떨쳐나섰다.

돌격대원들은 양수기가 전력사정으로 멎어서면 발동발전기를 돌렸고 나중에는 물막이옷을 입고 차디찬 물속에 뛰여들어 물통으로 물을 퍼내였다.

황주군, 은파광산대대의 돌격대원들은 물막이옷마저 갑옷처럼 얼어드는 혹한을 무릅쓰며 치렬한 전투를 벌렸다. 결사관철의 낮과 밤이 이어지는 속에 마침내 기초공사는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

블로크를 생산하자면 많은 물재가 필요하였다.

이때 련대시공과장 손철동무는 건설장주변에 무진장하게 파묻혀있는 탄재를 리용하여 블로크를 생산할것을 발기하였다.

세멘트와 혼합하여 블로크를 만들어 강도시험을 해본 결과는 매우 좋았다.

이렇게 생산한 블로크는 계획은 6만장이였는데 생산량은 10만장을 넘어섰다.

당의 명령지시집행에서는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그들은 실천으로 증명하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결사대 앞으로!》의 구호를 심장으로 웨치며 피어린 결사전을 벌려온 돌격투원들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울 때 못해낼 일이 없다!

황해북도련대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이처럼 불가능을 모르는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공사를 본때있게 다그쳐 완공의 그날을 앞당겨가고있다.

완공의 날을 향하여 앞으로!

역 사 건 설 장 에 서

현지보도

여기는 삼지연군 음지구에 일떠서는 역사건설장이다.

노래 《가리라 백두산으로》를 힘차게 부르며 백두산으로 끊임없이 쏟아오는 답사자들을 맞이하게 될 역사가 시간이 다르게 웅장화려한 자태를 드러내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줄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화살표들이 키돋움하는 만리마속도창조를 위한 사회주의경쟁도표와 《기적은 대중의 심장속에》, 《1분 1초가 새롭다》라는 제목의 이동속보판들이 건설장의 높뛰는 숨결을 더해주고있다.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무조건 관철할 결사의 각오를 안고 216사단 혜산—삼지연철길건설려단 북부철길청년돌격대 함경남도련대 청년돌격대원들은 수개월간의 줄기찬 투쟁을 벌려 연건축면적이 수천㎡나 되는 규모가 큰 역사를 완공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역사건설의 주타격대상들을 담당한 함경남도련대 청년돌격대원들은 기초파기, 벽체쌓기, 골조공사를 단숨에 해제낀 기세를 조금도 늦춤이 없이 내외부미장과 지붕조립 등 마감공사를 본때있게 다그치고있다.

청년돌격대원들은 새벽기온이 령하로 내려가는 이른새벽부터 밤길도록 치렬한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아스라한 공중에서 용접의 불꽃을 날리며 지붕조립을 다그치고있는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로동자들과 삼지연군꾸리기전투장에 파견한 함경남도의 청년동맹일군들의 미더운 얼굴마다에도 맡은 과제를 기한전에 앞당겨 완수할 자신만만한 배심이 비껴있다.

혁명가요를 높이 부르며 미장작업에 앞장선 함경남도련대 1, 2, 3, 4대대 청년돌격대원들.

이들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정신차릴새없이 승전포성을 울린 혁전투원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본받아 오늘의 건설전투에서 청춘의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가고있다.

지원의 마음을 안고 역사건설장에 급파된 백두산영웅청년려단과 혜산—삼지연철길건설려단 북부철길청년돌격대에서 선발된 미장공들의 기세도 이만지만이 아니다.

그런가 하면 역구내건설장에서는 혜산—삼지연철길건설려단 각 련대들사이에 사회주의경쟁이 치렬하게 벌어져 시간이 다르게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요란한 경적소리를 울리며 수송기에 참가한 운전사들이 대형화물자동차를 몰고 건설장에 연방 들어선다.

대중의 심장에 혁명열, 투쟁열을 북돋아주는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북소리가 온 건설장에 차넘치는 가운데 북부철길청년돌격대 함경남도련대 련대장 로력영웅 황장춘동무가 억센 주먹을 높이 쳐들며 불같이 웨친다.

《동무들! 승리의 결승선이 다가오고있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에서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한 기세로 힘차게 달리자!》

청년돌격대원들의 힘찬 화답인양 백두밀림이 과도체설레이는 건설전역 곳곳에서 증기게들의 동음이 세차게 울린다.

그 우렁찬 동음은 머지않아 두줄기 궤도우를 달릴 렬차에서 울리는 기적소리마냥 힘차게 들리여온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체육강국건설사에 길이 빛날 위대한 업적

압록강체육단에 깃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자욱을 더듬으며

우리 나라에서 관록있는 체육단의 하나인 압록강체육단이 창립 70돐을 맞이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체육발전을 나라와 민족의 강성번영을 위한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시고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주체체육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시였으며 체육강국건설의 새 력사를 펼치시였습니다.》

해방의 첫 기슭에서부터 주체체육이 걸어온 자랑스러운 로정에 금분자와도 같이 자기의 이름을 당당히 새겨온 압록강체육단.

주체조선의 체육발전을 위하여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바쳐오신 끝없는 심혈과 로고, 크나큰 믿음과 사랑의 이야기들이 뜨겁게 수놓아져있고 세계의 하늘가에 람홍색공화국기를 높이 휘날린 우리 체육인들의 영혼의 금메달이 얼마나 값높은것인가를 말해주는 우리 나라의 첫 체육단이다.

우리는 여기 압록강체육단에서 체육강국건설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본다.

* *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조직된 체육단인 압록강체육단은 력사가 오랜것으로만 유명하지 않다. 체육부문에서 《첫》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붙일수 있는 자랑은 이 체육단이 지니고있는 남다른 긍지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첫 현지지도사적이 깃든 체육단.

체육부문에서 첫 김일성상계관인을 배출한 체육단.

체육부문에서 첫 공화국영웅을 배출한 체육단.

우리 나라에서 첫 인민체육인과 첫 공훈체육인을 배출한 체육단.

체육부문에서 첫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체육단.

체육부문에서 첫 2중올림픽금메달수상자를 배출한 체육단.

…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가 있는 체육단이라고, 일류급체육단으로서 우리 나라 체육계의 기둥이였다고 높이 내세워주시였던 압록강체육단은 이밖에도 올림픽경기대회 금메달수상자가 제일 많은 체육단,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수상자가 특별히 많은 체육단, 체육부문에서 영웅이 많은 체육단으로 명성을 떨치고있다.

하다면 압록강체육단이 걸어온 이렇듯 자랑찬 70년의 로정에는 어떤 가슴뜨거운 사연들이 깃들어있는것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라일에 그토록 바쁘신 속에서도 주체36(1947)년 여름에 진행된 제1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여 새 조국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혁명적열정과 기상을 과시하고 돌아온 축구, 롱구선수단성원들을 몸소 만나주시였다. 그들의 경기성과를 축하해주신 수령님께서는 축전에 참가하였던 축구선수들과 롱구선수들로 상설적인 체육단을 조직하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해방된 해의 11월 1일 체육인들의 첫 조직인 북조선체육동맹을 무어주시고 다음해 10월에는 력사적인 첫 체육인대회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렇듯 세심한 관심을 돌려주시여 주체36(1947)년 9월 19일 우리 나라의 첫 체육단이 태어나게 되였다. 이렇게 창립된 체육단이 당시 내무국체육단이였던 오늘의 압록강체육단이다.

두개의 종목에 30여명의 선수, 감독들로 구성된 말그대로 소박한 체육단체였지만 우리 수령님의 품속에서 첫걸음을 뗀 새 조선의 체육단답게 생기와 활력에 넘쳐있었다.

미제가 강요한 3년간의 피어린 전쟁은 나라의 체육발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수 없었다. 체육인들은 손에 총을 잡고 전선으로 나갔으며 침략자들을 무찌르는 성전에서 무비의 용맹을 떨쳤다.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떨치는 체육을 하루빨리 발전시킬 구상을 지니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아직은 전쟁의 흔적이 가셔지지 못했던 주체44(1955)년 12월 12일 내무성《번개》체육단(당시)을 다시 조직하도록 해주시였다. 이처럼 압록강체육단은 우리 수령님의 각별한 믿음과 기대속에 새롭게 태여나게 되였다.

감격도 새로운 주체51(1962)년 9월 14일 이날은 압록강체육단에 있어서 크나큰 행운을 받아안은 영광의 날이다.

이날 체육단을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종목별국제, 국내경기들에서 패권을 잡을데 대하여서와 선수들이 기술이 높고 투지가 있어야 하며 훈련지도원(당시)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선수후비양성사업을 잘할데 대한 문제 등 체육단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실내훈련관과 숙소를 잘 건설하도록 하는 문제, 경기성적이 좋고 생활에서 모범인 선수들을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들에 추천하여 공부시키도록 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체육인들의 훈련뿐아니라 전도문제에 이르기까지 따뜻이 헤아려주신 우리 장군님의 이날의 현지지도는 주체체육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뜻깊은 계기로 되였다.

1960년대에 세계륙상계의 녀왕으로 이름떨친 신금단선수, 제8차 세계축구선수권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박승진선수, 1970년대에 미국선수를 타승하여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고 현대권투의 표본으로, 아시아권투계의 첫 올림픽금메달수상자로 세계를 들썩하게 한 구영조선수, 제34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복식경기에서 우승한 박영옥선수, 1990년대에 올림픽경기대회 페스링종목에서 우승한 김일, 리학선선수들이 바로 압록강체육단에서 배출된 선수들이였다.

우리 혁명발전에서 위대한 전환의 년대로 아로새겨져있는 1970년대초 체육단의 여러 종목들에 자신의 존함으로 된 표창장을 수여하도록 해주시여 더 높은 성과를 이룩하도록 뜨겁게 고무해주신 어버이수령님,

축구와 롱구경기들을 무려 10여차례나 보아주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

체육단에 김일성훈장과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거듭 안겨주도록 하시고 국제경기에서 우승한 체육인들을 한줄에 안아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크나큰 믿음과 뜨거운 은정을 떠나서는 정녕 압록강체육단에서 이룩된 그 하나하나의 성과들을 말할수 없다.

녀자힘장사로 온 세상에 소문을 낸 리성희선수, 세계마라손녀왕으로 이름떨친 정성옥선수들이 그렇듯 위대한 품에서 자라났다.

사람들은 정성옥선수가 세빌라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휘날리고 한 말을 기억할것이다.

《나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마음속으로 그려보면서 달렸다. 이것이 오늘 나를 크게 고무하였으며 내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자라난 체육인들의 심장속에 간직된 열화같은 진정의 분출이였다.

정성옥선수가 일본선수를 압도하고 우승의 테프를 끊은 날은 바로 89년전 일제가 조선을 완전한 식민지로 공포한 날이여서 사람들은 1930년대의 베를린올림픽경기대회장에 나왔던 한 마라손선수의 불우한 모습을 되새겨보지 않을수 없었다.

망국민의 울분을 누를길 없어 색안경까지 끼고 시상대에 올라 최인처럼 머리를 푹 숙였던 체육인과 애국가의 장중한 주악속에 높이 오르는 람홍색공화국기를 바라보며 삼가 경례를 드리는 주체조선의 체육인의 대조되는 두 모습은 탁월한 수령을 모셔야 체육인의 삶도, 진정한 금메달도 있다는것을 철의 진리로 보여주지 않았던가.

어려운 시련속에서도 불굴의 정신력으로 전진하는 조선의 기상을 떨친 한 체육인의 우승을 두고 20세기를 빛나게 장식한 조선민족의 자랑이라고 그처럼 높이 평가해주시며 체육부문의 첫 공화국영웅으로 내세워주시고 하늘같은 은정을 거듭거듭 베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

어찌 정성옥선수뿐이였던가.

조국과 인민의 기대를 안고 경기장에 나선 주체조선의 체육인으로서 금메달을 쟁취한것은 너무도 응당한 성과이지만 그처럼 값높이 내세워주시며 영예의 김일성상과 로력영웅칭호, 인민체육인, 공훈체육인칭호도 안겨주도록 하시고 한생에 잊지 못할 최상최대의 특전도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그 사랑속에 새 세기에도 우리 나라 력기계의 첫 올림픽금메달수상자인 박현숙선수가 배출되였다.

체육강국건설사에 뚜렷이 아로새겨진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손길아래 압록강체육단은 변함없이 체육강국건설의 선구자집단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엄윤철, 라은심선수들을 비롯하여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두각을 나타낸 영웅체육인들을 끊임없이 배출한 압록강체육단은 오늘의 만리마시대에도 전국의 체육단부문에서 본보기단위로 자랑떨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은정속에 최근 종목별경기장과 훈련관들, 체육기재들과 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갖추어놓고 문화후생시설들을 그윽히 일떠세운 압록강체육단에서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여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다.

지난 시기 국제경기들에서 40여개의 컵과 근 500개의 금메달을 포함한 1 400여개의 메달을 쟁취하였으며 국내경기들에서 600여개의 컵과 2만 4 000여개의 메달을 쟁취한 압록강체육단은 앞으로도 조국의 존엄과 기상을 만방에 떨치며 체육강국건설의 앞장에서 힘차게 나아갈것이다.

본사기자 강효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력사적인 로씨야련방 원동지역방문 15돐에 즈음한

영화감상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력사적인 로씨야련방 원동지역방문 15돐에 즈음한 영화감상회가 1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영화감상회에는 조선로씨야친선협회 위원장인 서호린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친선협회성원들, 평양시내 근로자들과 알렉싼드르 마메고라 주조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시고 나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수록한 우리 나라 기록영화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이시다》를 감상하였다.

제7차 국제무도경기대회 봉화채화의식 진행

제7차 국제무도경기대회 봉화채화의식이 18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청춘거리 체육촌에 있는 무도봉화대에서 채화된 봉화는 올해 12월 말라루씨에서 열리는 제7차 국제무도경기대회 개막식장의 봉화대에 지펴지게 된다.

의식에는 국제무도경기위원회 위원장인 리용선 국제태권도련맹 총재, 국제무도경기위원회 집행위원들, 제7차 국제무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인 뱰라루씨태권도협회 회장, 무도관계자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부 성원들과 조선무술련맹 위원장인 김정호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태권도선수들, 평양시내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의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전세계 무도인들과 각계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국제무도운동이 친선, 협조의 리념밑에 자기 발전의 길을 걸어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제7차 국제무도경기대회가 세계 여러 나라 무도조직들사이의 단결을 강화하며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리용선위원장이 경기대회에 보내는 채불봉을 봉화수들에게 넘겨주었다. 봉화수들이 채화한 채불봉을 들고 청춘거리의 도로를 따라 달리였다.

압록강체육단창립 7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압록강체육단창립 70돐 기념보고회가 18일에 진행되였다.

강필훈 조선인민내무군 정치국장, 체육단일군들, 선수, 감독,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압록강체육단 선수, 감독들과 종업원,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체육인들이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체육강국건설의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떨치는 눈부신 성과들을 창조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창립 70돐을 맞는 압록강체육단 선수, 감독들과 종업원, 일군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전투적경례를 보낸다고 지적하였다.

축하문은 일찌기 체육발전을 새 조선건설의 중대사의 하나로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36(1947)년 9월 19일 우리 나라에서 첫 전문체육단체인 내무국체육단을 조직하여주시였으며 체육단의 선수, 감독들이 혁신적인 체육성과를 이룩하여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51(1962)년 9월 14일 압록강체육단을 몸소 찾으시여 체육단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선수들의 경기를 수십차례나 지도해주시고 귀중한 체육기자재들과 훈련기재들도 보내주시면서 나라의 체육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고 축하문은 지적하였다.

우리 당은 압록강체육단이 강의한 군인정신, 군인기질로 체육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갈수 있도록 온갖 조치를 취해주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훈련과 경기에서 높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체육단을 전국의 본보기체육단으로 내세워주었다고 축하문은 강조하였다.

축하문은 압록강체육단이 창립후 지난 70년간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영광스러운 전투적행로를 이어오면서 주체체육의 년대기에 특기할 혁혁한 위훈들로 연혁사의 갈피갈피를 자랑스럽게 아로새긴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당이 제시한 사상전, 투지전, 속도전, 기술전의 경기원칙과 방법을 필승의 무기로 틀어쥔 체육단의 선수, 감독들은 제29차,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와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서 좋은 성적을 쟁취하여 주체조선의 막강한 위력을 온 세상에 시위하고 전만 군민에게 커다란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었다고 축하문은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압록강체육단의 선수, 감독들과 종업원, 일군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백절불굴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빛내이며 나라의 체육발전에 적극 이바지해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단장 최길호의 보고에 이어 부단장 송준호, 무부장 김치규, 선수 엄윤철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여온 체육단의 70년력사에 대하여 언급하고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체육단의 일군들과 선수, 감독들,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과 유훈을 생명선으로 삼고 체육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의 선두에서 영웅조선의 새로운 체육신화를 끊임없이 창조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선수, 감독들이 당이 제시한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의 결승선을 향하여 힘차게 내달리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국제경기들에서 람홍색공화국기를 자랑스럽게 휘날리는 당의 미더운 체육인, 조국과 인민의 참된 아들딸이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선사람의 체질적특성에 맞는 승산종목들에 힘을 집중하여 세계적인 기술수준을 돌파해나가며 실전훈련의 용광로속에서 전도유망한 선수후비들과 체육강자들을 더 많이 키워낼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불패의 혁강국, 세계적인 군사대국의 위용을 떨치는 주체조선의 체육인이 된 긍지와 자부심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더욱 분발하여 보다 큰 성과들을 이룩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제20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제1일경기 진행

제20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제1일경기가 18일 태권도전당에서 진행되였다.

경기장소는 우리 민족의 슬기와 기상이 깃들어있는 정통무도를 보기 위해 모여온 평양시내 근로자들, 체육인들, 태권도애호가들과 외국손님들로 흥성이였다.

첫날경기는 1단부터 4단까지의 남, 녀개인틀경기와 남, 녀단체틀경기로 나뉘여 승자전의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지난 시기 여러 선수권대회들에서 순위권에 입선한 우수한 선수들이 참가한것으로 하여 경기는 관람자들의 커다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선수들은 훈련과정에 련마해온 세련된 태권도기술과 높은 실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훌륭한 경기장면들을 펼쳐놓았다.

동작의 정확성과 일치성, 속도와 힘, 균형, 률동 등 모든 세부들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태권도선수들에게 관람자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이날의 경기는 높은 경지에 오른 정통태권도의 위력과 발전수준을 잘 보여주었다.

경기는 계속된다.

【조선중앙통신】

자력갱생은 부강조국건설을 추동하는 백승의 원동력

재일본조선인축하단 단장 기자와 회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9돐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 단장인 김청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 소장이 18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그는 조국땅 방방곡곡 그 어디서나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천하제일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려는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가 활화산처럼 분출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국방문기간 평양가방공장, 원산구두공장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며 100% 국산화된 질좋은 제품들을 펑펑 생산하는 튼튼한 자립적경제토대와 잠재력에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

모든것을 제손으로 훌륭히 만들어 세계를 더더욱 놀라게했다는 자신만만한 배짱을 안고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비약을 이룩해나가는 조국인민들의 힘과 기백은 정말 대단하다.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주저앉았을 엄혹한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는 강인한 모습들을 보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자강력으로 원쑤들의 제재와 봉쇄의 쇠그물을 썩은 바줄처럼 끊어버리며 승승장구해나가는 공화국의 불굴의 기상을 절감하였다.

돌이켜보면 지난날 자기 힘을 믿지 않고 큰 나라를 숭배하며 섬기는 사대주의때문에 망국의 수치를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우리 겨레가 아닌가.

그러면 조선민족이 백두산천출위인들을 대를 이어 모시여 그 어떤 대적도 무서운것 없고 그 어떤 대국도 부러운것 없는 강국의 인민으로 위용떨치고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개척하시고 이 땅우에 주체의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공적은 태양조선의 력사와 더불어 찬연히 빛을 뿌릴것이다.

오늘 우리 조국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강성번영의 활로를 힘차게 열어나가고있다.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자주적존엄과 무진막강한 국력을 만천하에 과시하고있는 백두산대국의 자랑찬 모습은 자력갱생이야말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압박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며 부강조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백승의 원동력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하기에 민족성원모두가 승리와 영광만을 새겨온 우리 공화국의 력사를 자력갱생의 력사라고 긍지높이 말하고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의 신념을 안고 주체의 길, 애국애족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가겠다.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떠나갔다

오태영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18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청소년과외교양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올 열의드높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학생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사회주의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려면 그들에 대한 과외교양도 잘해야 합니다.》

청소년학생들을 조국의 미래로 억세게 키워가는데서 과외교양은 자못 중요하다.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청소년과외교양지도국의 일군들이 올해에 들어와 청소년과외교양지도사업에서 전환의 큰걸음을 내짚고있다.

이들이 어떻게 자랑찬 성과를 거두게 되였는가.

청소년과외교양부문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연구학습하는 과정에 이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책임적이며 중요한 사업을 맡아안았는가를 더욱 심장깊이 절감하게 되였다.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은 이들의 눈을 번쩍 띄워주는 뜻깊은 계기들이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삼지연학생소년궁전과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를 몸소 찾으시여 새 세대들에 대한 교육에서는 가정교육, 학교교육과 함께 과외교육을 잘 배합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면서 과외교육교양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수 있는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던것이다.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청소년학생들에 대한 과외교육교양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 드높은 열의밑에 국의 일군들은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를 세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과외교양기지들의 교육조건과 환경부터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키자는것이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이들은 강동군 책임일군들과의 긴밀한 협동작전으로 짧은 기간에 군학생소년회관을 본보기로 꾸려놓고 보여주기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온 나라의 야영소, 궁전, 회관들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요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빈틈없는 조직사업을 따라세웠다. 경쟁열풍이 고조되는 속에 수많은 청소년과외교양기지들이 몰라보게 변모되였다. 이 과정에 수많은 소조실들이 다기능화된 소조실들로 현대적으로 꾸려짐으로써 지도교원들이 짧은 시간에 소조운영을 효과적으로, 과학적으로 할수 있는 훌륭한 환경이 마련되게 되였다.

국의 일군들은 이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적극 짜고들었다.

이들은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자면 지도교원들의 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지도교원들의 경험발표회와 교육과학성과전시회, 소조원들의 창안품 및 솜씨전람회를 실속있게 조직진행하는데 많은 품을 넣었다.

일군들은 이 모든 사업들이 지도교원들의 자질향상에 실지 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여러 단위들을 오가면서 좋은 경험들을 배우기도 하고 대중의 집체적지혜도 합쳐나갔다.

하여 지난 8월초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지도교원들의 경험발표회와 교육과학성과전시회, 소조원들의 창안품 및 솜씨전람회가 천수백명이 참가한 가운데 동해지구는 함흥시에서, 서해지구는 평성시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여기서는 수학소조운영방법을 개선하고 교수밀도를 높인 경험을 비롯하여 수많은 경험들이 교환되고 교육지원프로그람들과 각종 실물모형을 비롯하여 1 000여점의 우수한 전시품들이 전시되였다. 애쓴 보람이 있었다. 지도교원들속에서 이번에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는 목소리가 세차게 울려나왔다.

또한 국의 일군들은 전국의 소년단야영소들의 야영활동의 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기 위한 사색과 탐구를 심화시켜나가는 한편 야영소들에 종합지식보급실을 꾸리는 사업도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뿐만아니라 당의 은정속에 훌륭히 개건된 과외교양기지들의 관리운영사업에서 혁신을 가져오기 위하여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관리도구전시회를 열고 좋은 경험들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도 의의있게 조직진행하였다.

과외교육교양사업을 당이 바라는 높이에 올려세우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한 국일군들의 전투적인 사업기풍은 이렇듯 불과 한해사이에 훌륭한 결실을 안아왔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관철에서 자랑찬 큰걸음을 내디딘 이곳 일군들의 열의는 대단히 높다.

비록 많은 성과와 경험들이 마련되였지만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는 자각을 안고 신들메를 조이고나선 국의 일군들은 지금 만리마속도가 창조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보다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 우리의 후대들을 앞날의 강성조선의 유능한 혁명인재들로 키워내기 위한 청소년과외교양지도국 일군들의 불같은 노력은 반드시 알찬 열매를 맺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명훈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헌신하자

자력자강의 열풍 세차게 휘몰아친다

온천화강석광산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금지의 화강석산지인 계명산을 타고앉은 온천화강석광산!

자력갱생대진군의 장엄한 발구름소리안양 해발 수백m의 높은 산정에서 울리는 둔중한 발파소리에 공명되여 들려오는 혁신의 새 소식이 우리의 가슴을 쿵쿵 울리였다.

년간 인민경제계획 8월말까지 앞당겨 수행!

자체의 힘으로 생산정상화의 돌파구를 열어놓고 가까운 앞날에 증산의 동음을 더 높이 울릴수 있는 튼튼한 과학기술적토대를 마련한것은 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이 자력자강의 길에 새긴 위훈중의 위훈이다.

당정책결사관철은 우리의 생명!

순간의 답보도 없이 구보로 내달리고있는 광산로동계급의 앞장에는 원석3작업반의 미더운 채석공들이 서있다. 생산의 첫 공정을 맡은 이들은 지난 7월에 년간계획완수의 포성을 힘있게 울려 광산적인 년간계획수행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계획수행기간 제일 어려운 전투는 새해 첫달 전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흥분된 심정으로 받아안고 첫 전투에 진입한 광부들의 기세는 높았으나 자연은 이들의 욕심을 호락호락 받아주지 않았다.

원래 명하 수십℃를 헤아리는 겨울철조건에서 원석생산은 거의나 불가능한것으로 되여있었다.

현장에서는 광산적인 협의회가 열렸다. 일군들의 목소리가 절절하게 울렸다.

우리 광산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화의 나날 승리할 조국의 래일을 내다보시고 몸소 리전을 잡아주신 영광의 일터이다. 이 뜻깊은 일터에서 일하는 우리가 겨울철조건이라고 물러설수 있겠는가.

건설의 대번영기에 자기들이 맡고있는 본분을 자각한 채석공들이 분연히 일떠섰다.

엄혹한 자연과의 치렬한 전투속에서 벌어지는 원석생산과정은 말처럼 순탄치 않았다. 대소한의 추위는 살을 에이며 뼈속까지 스며들었다.

가파로운 벼랑에 바줄을 걸고 내려가 산중턱에 판간대를 설치하고 엄음덩이같이 차디찬 화강암에 정대를 박고 착암을 해야 하였다.

난관은 겹겹이 막아나섰다. 발파작업에 필요한 화공품이 부족하여 기세좋게 나가던 전진속도가 늦추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조건에서 원석생산량을 늘이자면 결정적으로 구멍을 적게 뚫고도 발파효률을 최대한 높여야만 했다.

작업반장 리영철동무와 작업반원들이 무릎을 마주하고 얼떠른정을 벌린 끝에 기발한 착상이 나왔다. 착암위치와 천공개수, 깊이를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고 분리식발파방법을 도입하여 발파효률을 높이는것이였다.

하자고 결심한 사람에게는 막혔던 길도 열리는 법이다.

착상은 도입되자마자 성공적이였다. 폭약소비가 이전보다 훨씬 줄어든 반면에 발파효률은 근 1.5배로 높아져 화공품이 부족한 속에서도 원석생산량은 부쩍 늘어났다.

생산이 어렵다는 겨울철조건에서 오히려 더 높은 기준을 정하고 공격전을 벌려온 이곳 로동계급의 투쟁을 어찌 위훈에 비기지 않을수 있으랴.

자기들이 맡은 일터를 당정책결사용위의 한 전구로 여기고 결사관철의 정신을 지닐 때만이 만리마시대의 갈피에 자랑찬 위훈의 자욱을 뚜렷이 새길수 있는것이다.

자력갱생은 비약의 원동력

간화강석작업반에서 생산전투를 벌리던 과정에 소절기가 고장났을 때였다.

종전에는 이 소절기에 고장이 생기면 전문단위에 의뢰하여 수리해오군 하였다.

관례대로 하면 설비수리에 필요한 부속품을 마련하는데만도 두달이라는 시일이 걸릴수 있었다. 이것은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수행하는데서 큰 난관이 아닐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팔을 걷고 앞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다. 작업반의 김창보, 김명선, 오명학, 황은학동무들이였다.

이들은 어려운 설비수리를 자체의 힘으로 해제낀 대담한 결심을 내리였다.

특별한 수리경험이 있어서가 아니였다. 그들을 떠민것은 과학기술의 힘이였다.

당시 광산에서는 과학기술보급실을 훌륭히 꾸리고 운영을 정상화하는 한편 작업반별로 과학기술발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에 대한 총화사업을 드세게 내밀고있었다.

당앞에 걸의한 날까지 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는 의지와 과학기술이 결합되니 소절기수리쯤은 문제가 아니였다.

이틀간의 전투끝에 그들은 주파수변환기와 PLC체계를 자체실정에 맞게 개조하여 설비를 살려냈고 생산정상화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이뿐이 아니다. 《소절기베트보호막개조》와 《연마기방향조절번개조》를 비롯한 30여건의 기술혁신안을 창안한것, 압축기수리에 쓰이는 바킹을 비롯한 여러가지 부속품을 자체로 만들어 년간계획수행에 이바지한것 등 이들이 거둔 모든 성과는 과학기술로 증대된 자강력이 낳은 알찬 열매들이다.

막아서는 모든 난관을 제힘으로 뚫고나가는것은 오늘날 광산로동계급의 투쟁기풍으로 되였다.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든 광산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자체의 힘으로 자행식채석기를 받아들일수 있게 새 광구를 형성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빛나는 위훈을 아로새김으로써 생산능력을 보다 늘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당정책결사관철과 자력갱생의 정신, 과학기술증시를 천연암반보다 더 굳세게 마음속에 또아박은 이곳 로동계급의 심장의 맥동을 전하며 오늘도 계명산판에 자력자강의 열풍이 세차게 몰아치고있다.

홍 성 준

증산의 동음 높이 울리며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출하직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위환경과 일터를 사회주의맛이 나게 문화위생적으로 꾸리고 잘 관리하며 기대들을 알뜰히 거두고 합리적으로 규모있게 배치하여야 합니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손꼽히는 본보기단위인 2중3대혁명붉은기 출하직장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그들중에는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는 오늘날 세멘트를 공급받기 위해 오는 사람들만 아니라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깐진 일본새를 배우며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다.

새것처럼 알른거리는 기대들에서 울리는 생산정상화의 동음, 인파이 멎들어지게 꾸려진 직장의 모습은 나의 사상을 알려면 나의 기대, 나의 일터를 보라는 말의 참뜻을 다시금 새겨안게 한다.

직장에는 포장기와 출하기, 압축기와 제진기를 비롯한 크고 작은 설비들이 적지 않다.

최근 몇해동안 이 설비들은 모두 새것처럼 수리정비되였다. 매일같이 수천t의 세멘트를 각지로 떠나보내는 출하장도 알뜰히 꾸려져 세멘트를 다루는 단위의 모습이란 찾아볼수 없다.

몇해전까지 직장에는 다른 단위들보다 뒤떨어진 측면들이 있었다. 설비들의 가동상태도 낮았고 정리되지 못한 구내에서는 세멘트먼지가 흩날렸다.

그때 직장일군들인 박영수, 안학순동무들은 종업원들앞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기업소의 얼굴인 우리 일터가 번듯해야 위대한 장군님을 명예지배인으로 높이 모신 영예를 더욱 빛내여나갈수 있다.

불길은 이렇게 지펴졌다. 직장의 종업원들은 자기 일터에 대한 애착심을 지니고 설비들을 손색없이 수리정비하는 투쟁에 떨쳐나섰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중요자재를 앞장에서 해결해주는 기업소책임일군들의 모습에서, 자기들과 한마음이 되여 설비관리에 필요한 물자를 안고나오는 가족들의 소행에서 이들은 더욱 힘을 얻고 분발하였다.

그후 직장에는 설비수리를 전문화할수 있게 출하설비수리조와 전동기수리조, 목공조가 나오고 종업원들의 긍정자료가 반영된 애국적소행기록부도 생겨났다. 그때부터 성과는 부쩍 확대되였다.

모두가 애쓴 보람이 있어 설비들은 새것처럼 성능이 개선되고 구내에 흩날리던 먼지는 가뭇없이 사라졌다.

이들의 노력은 비단 설비관리에만 깃들지 않았다.

직장의 전물과 탈의실, 문화후생시설도 손색이 없게 꾸려졌다.

구내의 못주변과 온실, 수영장도 볼만 하다.

그렇듯 일터를 남부럽지 않게 꾸릴 때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생산물을 출하하는 단위라는데로부터 세멘트를 건설작업에 흔하게 리용하려는 편향이 있었다. 그때마다 일군들은 말했다. 우리가 실어보내는 세멘트는 그대로 전선에 보내는 탄약과 같다.

이런 애국의 마음안고 직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수영장의 수조공사때에는 상원천주변에 흔한 차돌로 특색있게 시공하였으며 천정공사때에는 값비싼 건재대신 자체로 모아들인 발로수지로 멋지게 단장하였다. 실내의 탁구장바닥도 주변광산에서 나오는 광석을 색갈별로 골라 인조석미장으로 처리하였으며 벽체아래부분은 관유리를 리용하고 남은 자투리로 대리석 못지않게 장식하였다.

오늘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설비관리와 생산문화확립, 군중문화예술과 대중체육활동에서 우수한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혁신적인 일본새에 감탄하며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단위야말로 세멘트증산의 동음높은 곳이라고.

본사기자 지 원 철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안고

청진청년역 일군들과 종업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의 마음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실천활동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처 보기에도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이였다. 몇달사이에 청진청년역이 더 환해진것 같다는 우리의 이야기에 역장 지영철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역은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령도자욱이 깃들어있는 영광의 일터가 아닙니까.》

지난 3월말 청진청년역 일군들이 한자리에 모여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기념일을 맞으며 역사를 더 훌륭히 꾸릴데 대한 문제를 토의할 때였다. 전물에 새 외장재를 바르자는 의견은 한결같았으나 부역장 리정림동무는 문제를 그렇게만 보지 않았다.

《지금은 만리마시대입니다. 그냥 땜때기식으로가 아니라 미장면이 나올 때까지 벽체를 말끔히 긁은 다음 새 외장재를 발라야 한다고 봅니다.》

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오래동안 외장재를 덧발라온 두터운 역사벽체를 무슨수로 다 긁어낸단 말인가. 그러나 리정림동무는 지금상태에서 외장재를 바르면 벽체의 얼룩은 당분간 가리워질수 있겠지만 량심에 앉은 티야 어떻게 가리울수 있겠는가고 절절히 말했다.

다음날부터 청진청년역에서는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도밑에 역사를 완전히 일신시키기 위한 전투가 시작되였다. 낮과 밤이 따로 없었다. 종업원이라면 누구나 근무가 끝난 뒤면 전투장을 찾아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쳤다.

드디여 수십년세월의 흔적이 가뭇없이 사라지고 역사가 새로운 모습으로 일신되였을 때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가슴은 얼마나 커다란 기쁨으로 높뛰였던가.

그처럼 어렵게만 생각되던 일을 자체의 힘으로 해낸 긍지와 보람을 안고 이들은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문화선전실과 과학기술보급실, 작업반휴게실들을 비롯하여 역안팎을 보다 현대적이며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기 위한 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하여 역은 불과 몇달사이에 옛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훌륭하게 변모되였다.

얼마전 역초급당일군의 방으로 낯모를 젊은 녀인이 들어섰다. 함흥시에서 살고있는 영예군인이라고 자기 소개를 한 그 녀인은 두눈에 눈물이 그렁한채 찾아온 사연을 이야기했다.

《친자매, 친혈육이라면 이보다 더하겠습니까. 몸이 불편한 저를 알아보고 차표는 물론 도중식사까지 마련해주며 온갖 성의를 다하니 정말…》

그러면서 녀인은 안내작업반의 엄영희, 김경희동무의 아름다운 소행을 널리 소개해달라고 거듭 부탁하는것이였다. 인민의 참된 충복으로 살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고 맡겨진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어찌 이들뿐이랴.

전쟁로병들을 비롯한 로인들과 영예군인들에게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친혈육의 정을 기울이고 언제나 손님들에 대한 봉사를 친절하게 함으로써 그들로부터 우리 안내원이라고 정답게 불리우고있는 김향옥, 김송화, 리향숙, 김일심, 박수향동무를 비롯한 종업원들, 차갑이시간을 단축하고 화차보장사업을 따라세워 더 많은 물동을 사회주의건설장들에 보내주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고있는 한기두, 조태일, 김광일, 한용호, 민철기동무를 비롯한 역일군들과 운전부문의 종업원들 그리고 군중문화예술활동과 대중체육활동에 언제나 앞장섬으로써 집단안에 전투적기백과 혁명적랑만을 더해주고있는 천정철, 한현숙동무들…

이렇듯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령도자욱이 깃들어있는 영광의 일터를 더욱 빛내여가려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불타는 지향과 애국의 마음에 떠받들려 청진청년역은 오늘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할뿐아니라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과 군중문화예술활동, 군중체육활동에서도 본보기단위로 자랑떨치고있다.

본사기자 리 남 호

삶의 순간순간을 빛나게 살리

사리원방직공장 샤쯔천직장의 혁신자들

사리원방직공장 샤쯔천직장에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사랑과 믿음속에 떠받들리우고있는 혁신자들이 많다.

그들속에는 2년분 인민경제계획을 남먼저 수행한 권사공 리철옥, 정방공 정은심동무들과 년간계획완수자들인 정방공 장현순, 로옥양, 최은해, 권사공 현옥, 리성희동무를 비롯한 20여명의 혁신자들도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 말로써 대답할것이 아니라 자기 한몸을 내대고 실천으로 대답하는것이 애국자의 자세입니다.》

지난 4월 어느날 직장에서는 태양절을 맞으며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선참으로 수행한 권사공 리철옥동무를 축하하는 모임이 진행되였다. 축하의 인사와 선망의 눈길이 차넘치는 모임은 길지 않았지만 그 감화력은 참으로 컸다.

《축하해요! 하지만 우리 경쟁하자요. 다음번엔 우리도 양보하지 않겠어요.》

《철옥동무, 우리 수리공들도 소문난 이악쟁이들의 경쟁을 지켜보겠소. 다음번에도 꼭 1등해야 돼!》

여기저기서 승벽을 부르는 처녀들의 목소리와 고무의 목소리가 울려나올 때 당세포위원장 오명춘동무가 모두에게 열렬히 호소하였다.

《우리모두 공장의 리옥선영웅처럼 수령이 알고 인민이 사랑하는 혁신자가 되자요. 만리마시대가 그걸 요구하고있지 않나요.》

불현듯 모두의 눈가에는 공장의 자랑인 리옥선영웅의 모습이 떠올랐다.

21살에 김일성청년영예상을 수여받고 24살에 로력영웅이 되였으며 그후에는 처녀의 몸으로 나라의 정사를 론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되였던 1970년대의 정방공 리옥선영웅, 그는 직물생산에서 사리원방직공장이 전국의 모범이 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에 새기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충정의 순회길을 달리고 달리였다.

하기에 어머니당에서는 평범한 정방공의 불같은 충정의 마음을 귀중히 여기고 온 나라가 다 아는 정방공으로, 직장장으로 내세워주지 않았던가.

그 시각 샤쯔천직장 종업원들의 심장은 공장이 낳은 리옥선영웅처럼 조국이 알고 인민이 사랑하는 방직공이 될 불타는 맹세로 세차게 높뛰였다.

그 불같은 심장들이 지펴올린 새 기준, 새 기록창조운동의 불길은 온 직장을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게 하였다.

다축, 다기대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집단적경쟁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는 속에 7월초에는 리철옥동무가, 7월 30일에는 정방공 정은심동무가 2년분계획을 완수한데 이어 공장에서는 년간계획완수자대렬이 나날이 늘어났다.

직장의 기대공들은 교대하는 몇분의 시간마저 아까와 미리 나와서 앞교대성원들과 함께 일하다가 기대를 인계받군 하였고 기능이 높은 동무들은 기능이 어린 동무들에게 맡겨진 전투과제가 못내 걱정되여 자기 교대를 마친 후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이 일정계획을 넘쳐 수행하도록 도와주었다.

교대별, 작업반별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생산현장에서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기풍이 높이 발휘되였다.

어느날 기능이 어린 동무의 작업을 도와주고있는 리철옥동무에게 오명춘동무는 좀 쉴것을 권고하였다. 그때 리철옥동무는 얼굴에 흐르는 땀을 훔치며 이렇게 말하였다.

《천리마시대의 영웅들이 우리를 지켜보고있다고 생각하면 힘들지 않아요. 그들처럼 살고 싶어요.》

바로 이런 마음들에 떠받들려 직장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제재책동을 증산의 동음으로 쳐갈기며 지난 6월 12일 상반년계획완수의 승전고를 울리고 공장 사회주의순회우승기를 쟁취하였다.

원림이 쏟아지는 아름다운 천도 수백수천오리의 실로 이루어진다.

하루하루를 천림에 비유한다면 한오리한오리의 실은 시대의 정신으로 약동하는 이들이 맞고보내는 일분일초가 아니겠는가.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혁명의 전세대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끊없이 빛내여가는 이런 혁신자들이 많고많아 이 땅 어디서나 세인을 놀래우는 만리마속도가 창조되고 우리 조국은 더 높이, 더 빨리 사회주의승리의 령마루로 치달고있는것이다.

글 및 사진 김 국 철

불보다 뜨거운 사랑과 정을 바쳐

함경남도고려병원 의료일군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편을 들게 된것은 우리 당이 키워낸 보건일군들의 뜨거운 정성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

영광군 신덕리에서 살고있는 한 녀성이 얼마전 본사편집국으로 보내온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였다.

영영 걸을수 없다는 현대의학의 진단앞에서 부모들마저도 딸애의 발을 자르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던 9살 난 송림이가 제발로 대지를 딛고 일어서기까지에 바쳐진 함경남도고려병원 의료일군들의 불같은 헌신과 지극한 정성을 전하는 편지는 우리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더우기 송림이의 치료에서 결정적역할을 한것이 고려치료법이고 담당의사는 30살을 갓 넘긴 젊은 의료일군이라는 이야기는 우리를 더없이 기쁘게 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고려의학과 신의학을 옳게 배합하여 발전시켜야 치료예방사업을 비롯한 전반적보건사업, 우리의 주체의학과학기술을 더 높이, 더 빨리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송림이는 선천성질병으로 하여 태여나서 9살이 되여오도록 한번도 걷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던 그가 아버지의 등에 업혀 함경남도고려병원 의사인 고영용동무를 찾아온것은 지난 1월이였다.

당시 송림이의 상태는 말이 아니였다. 선천성내번족에 중추신경손상으로 인한 배설신경장애로 통통 부어오른 한발은 형제도 가늠하기 어려웠고 9살이 되도록 기저귀를 차고다녀야만 했다. 송림이를 대하는 고영용동무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한것은 태여나서 단 한번만이라도 부모들이 사준 신발을 신어봤으면 하는 소녀애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줄수 있는 방도가 없는것이였다.

과연 저 소박한 소원을 풀어주지 못한다면 우리 시대 보건일군이라고 떳떳이 말할수 있겠는가. 이런 시대적의무감이 고영용동무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다. 《송림이를 두고 가십시오. 제가 맡아 해보겠습니다.》

이 짧은 말속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서라도 우리 당이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후대들의 밝은 앞날을 끝까지 지켜내고야 말 한 보건일군의 드팀없는 결심과 의지가 그대로 비껴있었다. 그날부터 송림이에 대한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였다.

돌우에도 꽃을 피울 지극한 정성으로 치료를 시작한지 3일만에 마비되였던 중추신경이 점차 풀리면서 송림이는 혼자서 위생실출입을 하기 시작했고 열흘만에는 태여나 처음으로 발바닥으로 땅을 짚었다.

난생처음 신발을 신고 너무 기뻐 어쩔줄 몰라하는 딸애를 꼭 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송림이의 부모들에게 고영용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가 있는 한 송림이는 꼭 대지를 마음껏 활보하게 될겁니다.》

함경남도고려병원에서의 회복치료과정은 송림이가 한생토록 안겨살 사회주의제도의 품이 얼마나 넓고 따사로운지 실지 체험을 통해 알게 된 소중한 나날이였다.

병원의료일군들의 극진한 정성속에 송림이가 입원한 때로부터 병원문을 나서기까지의 30여일동안에 바쳐진 사랑과 정은 불보다 뜨거웠다.

친혈육처럼 어린 송림이가 적적해할세라 잠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온갖 지성을 다 바치며 말동무도 되여주고 마음도 안정시켜준 리홍섭, 김명수, 김진일동무를 비롯한 병원일군들과 의사, 간호원들의 그 진정을 한두마디의 말로 다 이야기할수 없다.

건장한 치료전투를 벌리면서도 송림이의 영양상태개선에 각별한 정을 기울여 닭고기를 비롯한 갖가지 보양음식들도 안겨준 고마운 사람들의 관심속에 그의 입원생활이 흘러갔다.

퇴원하는 날에는 학습장이며 연필을 비롯한 학용품까지 안겨주며 《송림이, 공부를 잘해라.》라고 하면서 정문밖에까지 따라나와 손저어 바래주는 병원의료일군들의 손을 꼭 잡고 송림이의 부모들은 끝끝내 뜨거운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송림이의 치료에 대한 취재를 하는 과정에 우리는 이런 인간사랑의 기적을 낳게 한 비결 즉 병원의료집단이 이룩한 의학과학연구과들에 대하여서도 주목을 돌리게 되였다. 특히 경장료법에 의한 소화기질환치료라든가 경추교정에 의한 경추증치료, 체질에 맞는 고려치료의 다양화 등 고려치료를 적극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뜻을 실천으로 받들어나가는 과정에 이들이 이룩한 의학과학기술성과들은 참으로 컸다.

고려치료사업에 한생을 바쳐가는 기술부원장 김진일동무와 조명국, 김순원, 조일용동무들을 비롯한 이곳 의료일군들의 헌신의 모습에서 우리는 심장으로 새겨안았다.

태여나 아홉해만에 송림이가 처음으로 발은 대지, 참으로 그것은 사회주의제도의 품속에서 끝없이 만발하는 인간사랑의 대화원이였다.

본사기자 김 성 민

양수기와 함께 30년

개천시상하수도난방사업소 작업반장 최춘영동무

우리가 찾은 양수장은 키높이 자란 버드나무와 아카시아나무들로 둘러싸여 무척 아담해보였다. 가을바람에 실려오는 양수기의 동음도 무심히 들려오지 않았다. 그곳에서 우리는 개천시상하수도난방사업소 작업반장 최춘영동무를 만났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보석이 땅속에 묻혀있어도 빛을 잃지 않는것처럼 애국의 마음은 그것이 비록 크지 않아도 귀중한것이며 언제나 아름다운것입니다.》

최춘영동무가 개천시상하수도난방사업소에서 일하게 된데는 무심히 들을수 없는 사연이 깃들어있었다.

지금으로부터 30년전 봄 어느날 개천시인민위원회의 정문을 나서는 최춘영동무의 마음은 개운치 못했다.

《일터가 무슨 대수겠니,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하겠다는 그 각오가 중요한거지.》

금방 배치를 받고 돌아와 생각에 잠겨있는 아들을 보며 전쟁로병인 아버지가 하는 말이였다. 그러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최춘영동무의 머리속에는 인민위원회의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이 또다시 떠올랐다.

들끓는 건설장에서 청춘시절을 보내겠다고 떼질하던 청년들, 새로 조직된 상하수도난방사업소도 그에 못지 않은 중요한 초소라고 안타까이 말하던 인민위원회일군…

최춘영동무에게는 지나온 나날들이 돌이켜졌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철도부문의 어느 한 건설돌격대에 탄원하여 중요대상건설장을 종횡무진하던 그 나날들은 비록 길지 않았지만 소중한 추억으로 가슴속깊이 자리잡고있었다. 청춘시절의 꿈도 포부도 많았던 그가 뜻하지 않은 라박상을 입고 돌아오게 될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새로 상하수도난방사업소가 조직된것도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위해 나라에서 취한 조치가 아니겠는가.)

다음날 그의 발걸음은 다시 인민위원회로 향하게 되였다.

그때 상하수도난방사업소에서 일하게 해달라는 최춘영동무에게 거듭 고맙다고 말하는 인민위원회일군도 당시 그가 로동을 극력 삼가할데 대한 의사들의 권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수가 없었다.

이렇게 최춘영동무는 상하수도난방사업소에 삶의 좌표를 정하게 되였다. …

무심히 들을수 없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양수장주변의 키높이 자란 나무들이 생각깊이 눈앞에 안겨들었다.

우리는 그에게 구태여 양수기와 함께 흘러온 30년의 나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가 수줍어하며 《뭐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더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서만이 아니였다.

울기나게 도색된 양수기들에 붙어있는 3중26호모범기대표식이며 각종 부속들로 가득찬 접약함, 보물인 출근부에 새겨져있는 그의 수표 등은 수십년세월 키높이 자라 양수장에 실심이 가지를 내리드리운 버드나무처럼 누가 알아주건말건 자기 일터에 정을 쏟으며 묵묵히 한생을 바쳐왔음을 다 말해주고있었던것이다.

(양수기와 함께 30년!)

이렇게 속으로 외워보는 우리의 뇌리에는 이런 생각이 떠날줄 몰랐다.

메사름게 흘러가는 평범한 생활에도 참된 삶이 깃들어있는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 아니겠는가.

이런 아름다운 인간들이 모여사는것이 내 나라, 내 조국이다.

본사기자 신 현 규

지극한 정성으로

대중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보건일군들속에는 은률광산병원 소아과 과장 홍성실동무도 있다.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을 책임진 인간생명의 기사라는 자각을 안고 그는 근 30년간 어린이들의 치료사업에 모든것을 바쳐왔다. 이 나날 홍성실동무가 어린이들의 치료와 건강회복을 위해 병원에서 지새운 밤이 그 얼마인지 모른다.

뜻밖의 일로 사경에 처한 어린이들을 위해 자기의 피와 살을 아낌없이 바쳐 소생시킨것을 비롯하여 환자들을 위해 바친 그의 정성은 참으로 지극하다.

궂은날, 깊은 밤 환자를 위해 왕진의 길도 수없이 걸었고 때없이 찾아오는 환자들을 늘 밝은 웃음으로 맞아주고있는 홍성실동무이다.

그는 어려진의 치료방법을 도입하여 환자들을 완치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지극한 정성으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를 빛내여가고있는 홍성실동무를 광산마을사람들은 우리 의사선생님이라고 정답게 부르며 따르고있다.

홍성실동무는 오늘도 높은 책임감을 안고 치료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로농통신원 심 윤 섭

역적무리를 철저히 매장해버려야 한다

박근혜《정권》의 파멸은 외세를 등에 업고 파쑈독재통치와 부정부패행위에 미쳐날뛰며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상태에 몰아넣은 역적무리에 대한 남조선민심의 준엄한 심판이였다.

낡은것이 멸망하는것은 력사의 법칙이다. 그러나 멸망이 가까와올수록 낡은 세력의 도전은 더욱 발악적으로 감행된다. 오늘 남조선의 현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지금 피뢰보수패당은 종국적파멸의 위기를 막고 더러운 잔명을 부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그 무슨 《참신한 변화》니, 《보수의 혁신》이니 하고 너스레를 떨며 등돌린 인민들을 꼬드기는가 하면 박근혜역도와 친박계를 당에서 축출하기 위한 놀음을 벌리면서 지들의 반역적체질을 가리워보려고 획책하고 있다.

한편 보수세력을 긁어모아 재집권을 실현할 야망밑에 보수통합놀음에 매달리고있다.

지금 피뢰보수패당은 동족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조치를 악랄하게 걸고들며 《안보위기》소동에 광분하고있다. 이것은 《안보》의 간판밑에 보수세력을 집결시켜 남조선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잃어버린 지위를 되찾기 위한 불순한 계책의 발로이다.

피뢰보수패당이 다시금 살판치면서 란동을 무리는것은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거스르고 초불민심을 짓밟는 용납 못할 망동이다. 인민들의 각성과 투쟁기세가 악화되면 역적무리들이 다시 머리를 쳐들기 마련이며 민중의 새세상은 오직 끊임없는 완강한 투쟁으로써만 안아올수 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운동사가 새겨준 피의 교훈이다.

돌이켜보면 남조선인민들은 오랜 세월 자주, 민주, 통일을 웨치며 반역통치배들을 반대하는 피어린 투쟁을 벌리여왔다. 그 과정에 극악한 독재자들을 권력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민주화열기를 고조시키군 하였다. 하지만 외세가 없는 민주화된 세상, 새 정치, 새 생활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간절한 념원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것은 반역무리들이 다시 득세하면서 인민들이 피로써 쟁취한 민주화투쟁의 열매를 짓밟고 새로운 파쑈독재체제를 수립하였기때문이다.

1960년 4월 남조선의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극악한 친미주구인 리승만역도의 반역통치에 대한 쌓이고쌓인 원한과 울분을 폭발시켜 대중적인 항쟁에 떨쳐나섬으로써 가증스러운 독재《정권》을 거꾸러뜨리였다. 그것은 미제의 식민지통치체제를 밑뿌리채 뒤흔들고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강렬한 지향을 뚜렷이 과시한 력사적 계기로 되였다. 하지만 그들의 념원은 미제가 내세운 박정희군사깡패의 류혈적인 군사쿠데타로 하여 무참히 짓밟히고 《유신》독재의 피비린 암흑시대가 펼쳐졌다.

1979년 10월 남조선에서 항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는 속에 악명높은 《유신》독재자가 심복의 총에 맞아죽은것은 민주화실현에 대한 인민들의 기대를 고조시키였다. 그러나 무지막지한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은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에 대한 인민들의 요구를 짓밟아버리고 몸서리치는 군부독재통치를 실시하였다.

1987년 6월 남조선에서 군부독재통치를 끝장내기 위한 인민들의 대중적인 항쟁이 폭발하고 정치정세가 격변하는데 급해맞은 군부독재《정권》은 기만적인 《민주화선언》을 발표하는것으로 인민들의 투쟁기세를 눅잦히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이로 하여 6월인민항쟁의 열매는 반역무리에게 찬탈당하였으며 남조선인민들은 독재통치의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희세의 독재광들인 리명박, 박근혜역도의 집권은 자주, 민주, 통일을 바라는 남녘민심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였다. 남조선에서 보수패거리들에 대한 각성이 무디여지고 반보수투쟁기세가 약화되면서 역적무리들이 다시금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피뢰보수패당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고 고아대면서 사회전반에 걸쳐 친미독재체제를 더한층 강화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면서 인민들의 정의로운 진출을 가차없이 탄압하였다.

특히 박근혜역도는 1인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유신》독재부활에 기승을 부리면서 진보적인 정당, 단체, 언론기관들을 강제로 해산, 비법화하고 력사교과서《국정화》를 추진하는 등 력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고 미쳐날뛰였다. 나중에는 도깨비무당년을 끼고 《국정》을 통락하고 권력형부정부패행위를 일삼으면서 사회를 극도의 파국과 혼란상태에 빠뜨렸다.

남조선에서 반보수투쟁을 끝까지 내밀지 못하고 반역무리의 명줄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한 후과는 이렇듯 처참하였다. 력사와 현실이 새겨준 교훈은 참으로 심각하다.

피뢰보수패당에게는 그 어떤 기대도 가져서는 안된다. 남조선인민들이 그토록 바라는 민주의 새세상은 오직 피뢰보수패당을 반대하는 끊임없는 투쟁으로써만 안아올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자면 이미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서도 시대의 흐름과 민심에 악랄하게 도전해나서는 피뢰보수패거리들을 력사의 무덤속에 철저히 매장해버려야 한다.

오늘 남조선에 조성된 정세는 부활을 기도하며 최후발악하는 피뢰보수패당이 다시는 고개를 쳐들지 못하게 반보수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릴것을 요구하고있다.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패거리들은 각계층 인민들이 한결같이 요구하는 적폐청산을 그 무슨 《정치적보복》이니 뭐니 하고 걸고들면서 악랄하게 반대해나서고있다.

특히 다음해에 있게 될 지방자치제선거를 보수세력을 완전히 부활시키기 위한 계기로 만들려고 획책하면서 보수세력을 집결시키려고 피를 물고 날뛰고있다.

한편 박근혜역도는 민심의 준엄한 시선이 집중된 법정에서 갖은 오그랑수를 쓰면서 징벌의 칼추를 어떻게 하나 모면하고 살길을 열어보려고 억스러운 추태를 부리고있다.

박근혜역도의 력찌끼를 얻어먹고 살던 극우보수떨거지들도 새로운 보수정당을 내온다 어쩐다 하면서 초불민심을 우롱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란동을 부리고 있다.

그 무슨 《변화》와 《혁신》을 부르짖는 피뢰보수패당의 기만술책에 절대로 속아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보수의 통합과 부활을 기도하는 역적무리의 불순한 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적폐청산투쟁, 반보수투쟁을 중도반단함이 없이,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전개해나가야 한다.

피뢰보수패거리들이 미리를 쳐들지 못하게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려나감으로써 가증스러운 역적무리를 종국적멸망의 무덤속에 완전히 처박아야 한다.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반보수투쟁을 끊임없이 벌려나감으로써 민중의 새세상을 키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다.

온 정 철

권력욕에 환장한 정치간상배의 추태

최근 남조선의 《국민의 당》대표인 안철수가 자기의 보수적경향을 그대로 드러내여 각계의 눈총을 받고있다.

안철수는 얼마전 당대표로 당선되자마자 집권세력의 《독선과 오만을 견제하기 위해 싸우겠다.》느니 뭐니 하고 기염을 토하였다. 그런가 하면 현 당국의 정책들을 비난하고 인사조치들에 대해 사사건건 제동을 거는데서도 보수야당들을 무색케 하고있다.

나중에는 《힘을 모으자.》느니 뭐니 하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과 《국회》공조와 정책련대에 대해 공모하는 추태까지 부리고있다.

얼마전에도 안철수는 《바른정당》과의 선거련대나 통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여 사람들을 경악케 하였다. 안철수의 이러 움직임은 다음해에 진행되는 지방자치제선거를 노린것으로서 권력야욕만 채울수 있다면 보수야당과의 야합이든 공조이든 가리지 않으려는 비렬한 속심을 여실히 드러낸것이다.

안철수가 피뢰보수패거리들과 어울려 돌아가며 항방없이 놀아대는것은 특바른 주견도 없이 오로지 추악한 권력야욕만 추구하는 한갖 정치철새로서의 그의 더러운 정체를 적라라하게 보여주고있다.

안철수로 말하면 정치계에 발을 들어놓는 첫날부터 남조선 각계에서 《정체가 불투명한 인물》, 《권력야심이 강하고 속물이 좁은 정치속물》이라는 비난을 받아오던자이다.

그가 지난 시기 자기는 《보수나 진보가 아닌 상식파》라느니, 정치리념은 《진보적자유주의》라느니 하는 얼치기주장으로 여론을 기만한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진보와 보수의 중간에서 이중적인 립장을 취하면서 자기에 대한 지지표를 늘이는데만 환장한 너절한 사이비정객이 바로 안철수이다.

이자가 《국민의 당》대표자리를 차지하자마자 보수에로 기울어지고있는것은 여론과 민심의 평가가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진보와 보수사이에서 랑다리치기를 하면서 두번이나 《대통령》선거판에 뛰여들었던 안철수가 그처럼 악을 써댔지만 패배의 고배를 마신것은 응당한 귀결이다.

스쳐지날수 없는것은 대세의 흐름과 초불민심에 도전하여 《중도》의 면사포마저 벗어버린 안철수가 피뢰보수패당과 한짝이 되여 반공화국대결악담을 거침없이 내뱉고있는것이다.

이자는 온 민족이 대경사로 맞이하고 경탄하는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와 수소탄시험에 대해 《리성을 상실한 행동》이라느니, 《미몽》이라느니 하고 악의에 차서 헐뜯으면서 《북에 대화를 구걸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과의 《동맹에 기초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보수야당패거리들보다 더 등이 달아서 고아대고있다.

안철수가 보수패당과 통족대결의 쌍피리를 불어대면서 광기를 부리고있는것은 무심히 볼 일이 아니다. 그러한 망동은 박근혜역적패당의 반공화국대결란동과 조금도 다름바 없는것으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남조선 각계에서 《정체성이 의심되던 안철수가 드디여 본색을 드러냈다.》, 《안철수의 〈국민의 당〉은 보수야당의 2중대》라는 비난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있는것은 우연치 않다.

안철수에게 고삐가 쥐여진 《국민의 당》이라는 마차는 지금 보수진영의 마당으로 한걸음한걸음 다가가고있다.

보수야당세력과 공모결탁하고있는 안철수와 《국민의 당》의 처사가 지리멸렬의 위기에 처한 피뢰보수패거리들에게 부활의 숨통을 열어주고 초불투쟁의 성과를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천하역적행위로 된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현실은 남조선의 민주개혁세력과 각계층 인민들로 하여금 《배신자들의 구락부》, 《신새정당》인 《국민의 당》의 보수우경화에 각성을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권력욕에 미치고 당리당략에 환장하여 보수패거리들과의 야합도 서슴지 않는 안철수와 《국민의 당》은 가장 추악한 역적무리로 력사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것이다.

리 성 호

나이제리아정당, 단체
우리의 수소탄시험성공을 축하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을 축하하여 나이제리아정당, 단체가 4일과 5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나이제리아인민전보당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의 대성공은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횡포하고 야만적인 압살책동에도 흔들림없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일관하게 관철하여온 조선인민의 빛나는 승리로 되며 종합적핵무력의 일대 시위이다.

오늘의 특대사변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인민의 앞길을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세계에 다시금 증명하였다.

조선은 이번 시험의 완전성공으로 핵탄들을 고도로 정밀화하고 그 위력을 최대로 높임으로써 국가핵무력완성의 완결단계목표를 달성하는데서 매우 의의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미국은 조선의 전략적지위와 실체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정책변화를 하여야 한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조선인민의 원칙적립장과 노력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여나갈것을 호소한다.

나이제리아조선친선협회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에서 단행된 수소탄시험의 성공은 조선인민뿐아니라 평화를 사랑하고 진리를 갈망하는 세계 진보적인류에게 있어서 공동의 경사로 된다.

수소탄시험을 포함한 조선의 모든 자위적조치들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수호하기 위한 주권국가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로서 결코 세계평화의 위협으로 될수 없다.

오히려 조선에 의해 세계평화와 안전이 담보된다는것이 바로 자주와 정의를 사랑하고 진리와 량심을 귀중히 여기는 인류의 공통된 견해이다.

우리는 이번에 조선이 단행한 수소탄시험의 대성공을 적극 지지하면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보낸다.

【조선중앙통신】

단평
매국노들이 당한 치욕

얼마전 한 외신이 트럼프가 이메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남조선당국에 대해 《거지같다.》고 말한데 대해 전하였다. 이로 하여 남조선에서 커다란 파문이 일어났다.

그런데 상전의 모욕적인 언사에 항변 한마디 못하고 그런 일이 없었다느니 뭐니 하며 구차스럽게 변명하던 괴뢰들은 왕청같은 뺨풀이놀음을 하였다.

저들의 망신거리를 보도한 언론사를 향해 《강력한 유감》이니, 《공조해손》이니 뭐니 하며 게두덜거린것이다. 그야말로 시어미역정에 개배때기 차는 격이다.

미국을 할애비로 섬기며 그의 옷섶에 매달려 잔명을 부지해가는 괴뢰들에게 있어서 상전의 비위에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는것은 상상할수 없다. 괴뢰들은 미국과 저들사이에 무슨 일만 생기면 상전과의 관계가 버그러질가봐 안절부절 못한다. 이런 쓸개빠진자들이기에 미국이 저들을 그처럼 박대하고 멸시해도 그것을 숙명으로 여기며 치욕과 수모를 묵묵히 감수하는것이다. 이 얼마나 가증한 신세인가.

현 남조선당국에 대한 트럼프의 랭대와 배척은 미국이 괴뢰들의 몸값을 과연 몇푼어치로 매기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었다. 그런데도 남조선집권자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미국에 《동맹강화》를 애걸하며 날로 더욱 비굴하게 놀아대고있다.

《싸드》발사대추가배치소동도 그것을 보여준다. 그러니 남조선인민들이 현 집권자에 대해 《민중을 버리고 미국을 선택한 〈대통령〉》, 《트럼프의 삼살개》라고 울분을 터치지 않을수 있겠는가.

꼬물만 한 민족적존엄과 자존심도 없이 대미추종에 환장해 날뛰는 매국역적들은 인민들의 저주와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엄 수 련

정당한 우리의 핵억제력강화조치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무력을 증강하고있다. 눈에 뜨이게 나타나고있는것은 해상무력증강이다.

얼마전에 《F-35B》스텔스전투기와 2 000명이상의 해병대병력을 실을수 있는 초대형상륙강습함을 일본에 있는 7함대에 전진배치하였다.

배수량이 4만 5 000t인 《트리폴리》호는 본격적인 루입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다음해 봄에는 상륙강습함 《포틀랜드》호가 정식으로 휘역하여 태평양에 전개된다.

미국은 해군의 전투력강화를 떠들며 핵전략잠수함수도 늘이려 하고있다. 이미 계획이 수립되여 실행단계에 들어갔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군의 무산스러운 움직임은 국제사회의 응당한 경계심을 자아내고있다.

그런데 미국은 저들의 무력증강이 급변한 지역정세에 대처하여 해군과 해병대의 작전능력을 높이기 위한것이라고 하고있다. 요컨대 《지역정세를 안정시키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것》이라는것이다.

미국은 유치한 말장난을 하며 세계를 우롱하고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국의 무력증강은 명백히 군사적우세로 지역적수들을 누르고 패권을 쥐기 위한것이다.

지금 세계의 초점은 아시아태평양지역특히 동북아시아에 집중되고있다. 적지 않은 나라들이 이곳에 중점을 둔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그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세계제패를 꿈꾸는 미국도 이 지역을 사활적인 곳으로 여기고있다. 여기에서 패권을 잡아야 세계를 지배할수 있다는것이 미국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곳에는 미국의 잠재적적수들이 있다. 이 나라들의 군사적능력은 미국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이다.

이런 조건에서 미국은 힘의 우세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독점적지배를 실현하려 하고있다. 미군부의 고위인물들은 무력으로 잠재적적수들의 태평양진출을 막아야 한다고 내놓고 말하고있다.

지난 7월 미태평양함대 사령관이 트럼프가 명령을 하면 우리 주변나라에 대한 핵타격을 개시할것이라고 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현재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전개된 무력으로는 지역의 대국들을 완전히 제압할수 없다고 보고있다.

물론 2020년까지 해군무력의 60%이상을 지역에 배치하는것을 목표로 내걸고있다. 그러나 그렇게 수자만 늘이는 방법으로 동북아시아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실현할수 없다고 여기고있다. 이로부터 미국이 고안해낸것이 바로 《F-35B》스텔스전투기와 같은 전략자산들을 탑재할수 있는 초대형상륙강습함과 생존확률이 가장 높다고 하는 핵잠수함의 수를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이였다.

전략자산의 확고한 우세를 보장하고 필요하다고 보는 임의의 시각에 불의적인 선제공격으로 침략목적을 달성하려 하고있다.

미해군의 고위인물들이 잠재적적수들을 제압전제하자면 핵잠수함증강속도를 높이는것이 시급하다고 한것, 초대형상륙강습함 《워스프》호 함장이 메이다제, 미싸일종합체를 갖추고 《F-35B》스텔스전투기를 탑재한 저들의 함선이 전진배치됨으로써 7함대의 전투력량이 확보되고 정밀타격능력이 강화되였다고 하면서 그 의의에 대하여 강조한것 등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전투력을 대폭 제고할수 있게 되였다고 하는 미해병대의 역할에 대하여서도 언급하지 않을수 없다. 미해병대는 상대측에 대한 선제공격과 해상상륙작전을 진행하기 위하여 편성된 군종이다. 최근년간 해외침략에서 미해병대의 역할이 더욱더 중시되고있다.

이번에 미국이 초대형상륙강습함들에 탑재하려고 하는 스텔스전투기들은 미해병대소속이다. 《워스프》호에 탑재되는 《F-35B》역시 주일미해병대 제121전투비행대대소속으로서 해병원정대와 함께 원정작전시 타격단에서 핵심적역할을 한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의 해상무력증강이 선제공격을 위한것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전략적목적달성을 위하여 전례없이 무모한 작전계획을 작성하고있다. 이것은 핵무기에 의한 선제타격을 기본전쟁방식으로 한것이다. 이미 이 지역에는 미국의 숱한 핵무기들이 배비되여있다. 이것도 모자라 막대한 자금을 들여 전술핵무기들을 현대화하고 지역에 전개하려 하고있다. 미국은 그것이 우리 주변나라들을 겨냥한것이라는것을 숨기지 않고있다.

미합동참모본부 부의장 폴 셀바는 중국과 로씨아의 핵공격에 대응하여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되여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미국은 얼마전에 《B61-12》핵폭탄시험을 진행하였는데 이것은 로중과 린접한 지역을 정기적으로 비행하는 미군의 전략 및 전술비행기들에 탑재할 목적으로 개발하였다고 한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대국들을 제압하고 이 지역에 저들의 지배권을 수립하려는 미국의 전략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문제는 미국이 그 시작을 어디에서부터 떼려 하고있는가 하는것이다. 두말할것없이 동북아시아의 판문에 자리잡고있는 조선반도이다. 이로부터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는것을 선차적인 과제로 내세우고있다. 남조선강점 미군을 질적으로 강화하고 첨단무장장비들을 끌어들여 우리의 면전에서 각종 전쟁연습들을 벌리면서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다. 지어 유사시 지상전투를 하지 않고 우리의 군사대상물들을 파괴하고 전투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전술핵무기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떠들어대고있다.

얼마전에는 일본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해병대 제121전투비행대대소속 스텔스전투기 《F-35B》 4대가 핵전략폭격기 《B-1B》 2대와 함께 남조선지역상공에 날아들어와 정밀폭탄투하훈련을 감행하였다.

아시아태평양지역지배를 노린 미국의 무분별한 무력증강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는 더욱 첨예해지고있다.

조선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잇닿아있다. 만일 대륙의 판문에 자리잡고있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불집이 터지면 어차피 주변나라들에로 확대되게 되며 세계적인 핵전쟁으로 번져지게 된다. 이것에서 전쟁을 막는가, 막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세계평화와 인류의 운명과 관련된 매우 사활적인 문제이다.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과 직접 대결하고있는 우리 공화국이 맡고있는 사명은 참으로 중차대하다.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려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변함없는 립장이며 목표이다. 이것을 실현할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강력한 전쟁억제력으로 미국의 핵전쟁책동을 제압하는것뿐이다.

현실은 우리 국가로 하여금 전쟁억제력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의 핵억제력강화조치는 정당하며 시비거리로 될수 없다.

리 학 남

어길수 없는 승리와 패배의 두 전통(5)
최후승리는 주체조선의것이다

새 핵보유국과 대결해야 할 무거운 부담을 짊어진 오바마는 자기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전략적인내》정책으로 규정하였다. 그것은 선임정권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별로 다름바 없었다. 오히려 오바마집권시기에 와서 우리 국가에 대한 미국의 적대행위는 더욱 악랄해졌다.

백악관에 들어앉기 바쁘게 오바마는 우리 공화국을 핵선제공격대상으로 규정한 이전 정권의 《작전계획 8010》의 개악안에 서명하고 대조선압살정책을 보다 강도높게 실행해나갔다.

2010년에는 핵태세검토보고서라는데서 그 무슨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위반국》이라는 감투를 씌워 우리 나라를 핵공격대상에 포함시켜놓았다.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평화적위성발사를 문제시하면서 방대한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핵전쟁연습을 벌려놓고 항시적인 핵위협공갈을 가하였다.

우리의 면전에서 벌어지는 합동군사연습들의 규모와 적용되는 전쟁수행방식이 이전보다 더 포악무도해졌으며 투입되는 전쟁장비는 주로 핵타격수단들이었다.

미국의 날로 가증되는 핵위협공갈에 맞서 우리 국가는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법화하였으며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는 길로 나아갔다. 핵무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취해졌다.

미국은 선불맞은 승냥이처럼 더욱 미쳐날뛰면서 핵억제력을 강화해나가는 우리 국가의 자위적조치들을 사사건건 걸고들었다.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우리 인민의 생존권을 빼앗으려고 미쳐날뛰였다. 지어 우리의 수뇌부와 핵시설을 겨냥한 그 무슨 《참수작전》과 《선제타격》에 대하여 거리낌없이 떠들어대며 핵항공모함타격단들과 핵잠수함, 핵전략폭격기편대들을 때없이 남조선에 끌어들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타격훈련을 공공연히 벌려놓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핵무기현대화를 다그치는 미국의 책동은 《평화수호》를 위한것으로 되고 자주권을 위해 뛰하는 우리의 핵억제력강화조치들은 《위협》으로 된다는 론리는 강도적궤변으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는것이였다.

날이 갈수록 포악무도해지는 미국의 핵공갈과 대조선적대시책동에 대처하여 우리 공화국은 고도로 강화발전된 핵공격능력을 련이어 세계앞에 과시하였다. 핵피성에 미국은 궁지에 빠지게 되였다.

오바마집권기간 우리 공화국은 여러차례의 핵시험을 진행하여 대성공을 이룩하였다. 수소탄시험과 핵탄두폭발시험의 성공을 통해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 실현하였다는것을 당당히 보여주었다. 미국이 우리에게 전대미문의 핵위협공갈과 제재를 한사코 가한 결과 우리 공화국은 최강의 핵공격능력을 갖추게 되였다.

지금 트럼프패거리들은 실패한 선임자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키어코 실현해보려고 최후발악하고있다. 집권하자마자 오바마의 《전략적인내》정책을 완전실패한 정책으로 락인한 트럼프패거리들은 군사적방법으로 조선반도핵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전례없는 광기를 부리고있다.

멋모르고 허덤비는 트럼프패거리들에게 우리 국가는 미국이 감히 선불질을 했다가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수 있는가를 똑바로 깨닫도록 실물로 보여주었다. 7월에 두차례에 걸쳐 단행한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와 8월말과 이달 중순에 우리 전략군이 진행한 두차례의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발사훈련, 지난 3일에 진행한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이 바로 그것이다.

미국은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와 수소탄시험을 걸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정상적인 무역활동과 경제교류의 구석구석을 다 차단하는 전대미문의 악랄한 《제재결의》들을 련속 조작해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말살하려는 흉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놓았다.

우리 공화국은 핵무력고도화와 자력갱생의 대진군으로 미국의 제재압박소동을 풍지박산내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는 원자탄, 수소탄과 함께 대륙간탄도로케트까지 보유한 명실상부한 핵강국으로서의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고있다.

지나온 력사는 미국의 뿌리깊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존재하는 한 조미사이에 아무런 문제도 해결될수 없으며 오히려 대결과 충돌위험을 증대시킬뿐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미대결사는 승리는 언제나 우리의것이고 패배는 항상 미국의것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이 아무리 발악해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이 법칙적인 두 전통을 절대로 바꿀수 없다.

우리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적대세력이 아무리 압박의 도수를 높여도 선택한 길을 에돌지 않고 꿋꿋이 걸어갈것이며 그 길에서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다.

(끝)

본사기자 김 수 진

미국의 정치적도발행위를 규탄

뛰르끼예대통령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간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도발행위를 규탄하였다.

그는 미국사법기관이 뛰르끼예의 이전 경제상에게 대이란제재를 위반하는데 공모하였다는 죄를 들씌운것은 정치적동기로부터 출발한것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는 이미전에 자기 나라가 미국의 대이란제재에 합세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힌바 있다고 하면서 미국은 부당한 관점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트럼프의 도발적인 언동을 비난

파키스탄외무상 하와자 무함마드 아씨프가 14일 기자회견에서 미국대통령 트럼프의 도발적인 언동을 규탄하였다.

최근 트럼프가 파키스탄이 미국의 많은 원조를 받으면서도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테로조직들과의 싸움에 나서지 않고있다고 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자기 나라 군대와 법집행기관들이 모든 수단들을 동원하여 그 어느 나라보다도 반테로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리고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은 미국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미국에 원조를 구걸하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미국이 파키스탄과 지역에 대한 그릇된 접근책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스라엘의 령공침범행위를 단죄

레바논외무 및 이민상이 최근 자기 나라 령공에 대한 이스라엘전투기들의 침범행위를 단죄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전투기들이 레바논남부도시의 상공을 저공비행하면서 일으킨 충격파음으로 건물들의 창문이 깨지는 등 피해가 초래된데 대해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의 령공침범행위를 유엔에 고소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 나라 수상 싸아드 하리리도 이스라엘이 레바논령공에 수시로 전투기들을 들이밀고있는데 대해 규탄하였다.

테로분자들의 기도 분쇄

말레이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최근 50일 남짓한 기간에 여러차례의 테로소탕작전이 진행되였다.

그 과정에 말레이시아와 동남아시아나라들에서 랍치와 살인을 일삼으며 주요행사와 기념일을 계기로 테로공격을 단행하려던 19명의 테로분자가 체포되였다.

5일 이 나라 경찰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심각한 빈궁문제

미국에서 탁국의 반인민적인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빈궁에 시달리고있다.

12일 미국인구조사국은 지난해에 전국적으로 빈궁자수가 4 060만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기업체파산사태

에스빠냐에서 지난 7월에 전국적으로 1 369개의 기업체가 파산당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1% 더 많은것이라 한다.

12일 이 나라 통계국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ㄱ-711486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